

“포도가지와 덩굴”

FRANK B. PHILLIPS 목사님의
“포도가지와 덩굴” 시리즈를
글로 옮겨놓은 것

이 책을 구입하시려는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바랍니다.

Justified Walk Ministries
P.O. BOX 233
Berrien Springs, MI 49103
(269) 471-9224

이 책의 내용이나, 저자의 다른 설교들, 혹은 다른 추천서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www.justifiedwalk.com

인용된 성경구절들은 특별한 표기 없는 이상 King James
Version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성경구절 이외의 다른 인용
글들은 특별한 표기 없는 한 모두 엘렌 화잇 부인의 글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저작권 2009

표지 디자인: Jessica Shultz
출판: Justified Walk Ministries
P.O. Box 233
Berrien Springs, Michigan 49103-0233

이 책은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값은 이미 갈
보리 십자가에서 치뤄졌습니다. 절박한 마지막 시대를 인
지한 우리들은 가능한 많은 영혼들에게 이 글을 전파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책을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책으로
인하여 당신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다른 영혼에게도 이 책
을 소개시키길 간곡히 바라며, 추가 본을 원하시면 보내드
리겠습니다. 은혜로 인한 성금을 보내기 원하신다면 기꺼
이 받아 모두 복음 전파에 쓰일 것입니다.

“아낌없이 받았으니, 아낌없이 나누라.”

“베짚을 통해 얻느니라.”

차례

1 장.....	5
2 장.....	21
3 장.....	37
4 장.....	55
5 장.....	73
6 장.....	93

4 포도덩굴과 가지

1 장

안에 거함과 의존함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기별 나누는 것을 원하시는지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번 마지막 수요일 집회를 끝마친 후 몇 주 동안 나는 하나님께 그 어느 기별보다 더 중요한 기별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연구하고 간구했다.

가장 중요한 사실들

지난 세 주 동안 나는 하나님께 정말로 필요한 그 기별을 보여 달라고 신실하게 기도하였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목요일 밤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기별로 나를 인도하셨다. 요한복음 14, 15, 16, 과 17에 있는 내용은 지금부터 하늘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설교할 만큼의 충분한 양일뿐 아니라, 사실 끝이 없을 뿐이다. 나는 이러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꼭 주고 싶은 기별을 두 혹은 세 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면, 어떤 기별을 택하겠는가? 별로 중요치 않은 기별에 시간을 낭비하겠는가? 당연히 아닐 것이다. 말 하나하나, 그에 담긴 생각 하나하나가 무척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 구절들로 다시 돌아갔을 때, 나의 초점은 요한복음 15:1-8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일화이다. 그것은 비유도 아니고 이야기도 아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기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요약해 놓은 일화이다.

이 여덟 절에 담긴 기별들은 너무나 명료하게 설명되었기에, 그것을 오해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당신이 이 기별을 읽었을 때, 아예 무시하거나 믿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택

6 포도덩굴과 가지

하게 될지언정, 그것을 오해할 수는 없다. 당신은 그것을 무시할 수 있고, 다른 구절들을 그것에 합하여 다른 결과에 다다를 수 있겠으나, 이 일화를 오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별은 제쳐 놓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고정관념들을 뒷받침하는 다른 구절을 대신 찾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

여기의 여덟 절에 담긴 말씀이 앞으로 두 주 동안 공부할 기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1-8).

이 성경 구절들 안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는 아주 흥미 있는 자료가 있다. 그중 가장 대두되는 주제에는 덩굴, 농부, 가지들, 열매, 안에 거함, 그리고 제자의 신분을 포함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화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그분이 하고자 하는 요점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음을 주시해야겠다. 비유들은 가끔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다 - 예를 들자면 부자와 나자로가 그 한 예이다. 그렇듯이 어떤 비유들은 전하고자 하는 기별이 무엇인지 확실히 꼬집어 내기가 힘들 때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사용하신 일화는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다. 한 예를 들자면, 그분이

들판에서 말씀하신, “들판에 나는 백합화들을 보라, 그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자기 스스로 고생하거나 애쓰지 않는다,” 이러한 가르침을 놓쳐서는 안된다!

그러나 가끔씩은 그렇게 간단 명료하고 쉽게 표현된 진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기도 한데, 그것은 그 진리를 일반적으로 혹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생긴다. 우리는 어떤 한 진리를 실제적으로 사용하기가 곤란할 때가 오면, “아마도 그분이 글자 그대로 뜻한 것이 아니었을 거야,” 라고 말하며 주춤하게 되고, 그 진리의 간단 명확성을 왜곡하여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시킨다.

안에 거함: 핵심 주제

“여기에 있는 여덟 구절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온다. 그 의견에는 함축된 약속, 덩굴, 안에 거함, 열매 맺기, 그리스도와 의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한 가르침, 우리의 무력함, 제자 되는 것, 그리고 참 덩굴이 있기에 거짓 덩굴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결국에 그들은 이 구절들의 핵심 주제는 안에 거함이라는 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 그리스도안에 거한다는 것은 진실로 어떠한 뜻인가?

“안에 거함”이라 함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란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나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그분 안에 거함이 어떻게 유지되는가?”라는 질문을 당신은 몇 번이나 해 보았는가? 어떻게 해야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은 그분 안에 거함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거함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알겠는가?

고린도후서 1:21, 22를 읽어보자.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나?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가 누구라고 했나?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놓으신다. 그뿐 아니라 그 과정을 완수하신다. 이제 22절을 눈여겨보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8 포도덩굴과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옮겨놓으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기름(선택) 부으셨으며, 이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닌 성령의 행함이라 말씀하신다. 그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거함을 유지하시며, 그리고 결국 우리를 인 치신다.

인 치는 것에 대해 궁금하지 않는가? 어떤 것을 인을 칠 때는 거기 중요한 시간적 요소가 있기에 인을 친다. 그렇지 않은가? 당신이 과일 잼을 만들 때, 그것을 봉하는 이유는 주어진 기간내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쓸모없이 돼버리기 때문에 밀폐(인 치기를) 한다. 당신이 어떤 서류를 공증 받아서 밀폐하는 이유는, 거기에 관계된 시간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 자신은 그 서류의 내용에 대해 지금 이 순간 알고 있으나, 또한 미래에 정해진 시간에 다른 어떤 이도 그 서류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기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 치는 것에는 시간의 요소가 관계되어있다.

안에 거함: 계속되는 과정

이제 가지치기로 관심을 돌리자. 가지치기가 무엇이나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보다, 지금은 가지치기를 하나의 계속되는 과정이라고 간단히 이해하자. 가지치기는 어떤 일의 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의 개념이다. 가지치기는 다른 것이 일어나고 있는 동시에 일어난다. 다음이 실제 그 과정이다: 가지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가지치기는 그 가지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든다; 더 많은 가지치기는 그만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래서 적은 양의 열매에서, 많은 열매로, 그리고 가장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당신과 나를 위한 예수님의 계획은 우리가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많은 가지치기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정원사가 - 농부가 - 어떤 가지를 봤을 때 그것이 가지치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가지가 원하건 원치 안건 그는 가지를 쳐 내기 때문이다.

안에 거함: 기름 부으심

이 사상을 조금 더 깊게 연구할 수 있는 다른 한 구절을 함께 읽어보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후 1:21, 22).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립되고 선택된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치시며 성령이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도록 허락하신다.

요한1서 2:27, 28절을 살펴보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곳에도 기름 부음(선택함)이 나오는 것을 눈여겨보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 누가 기름 부으신다고 했나? 하나님! 요한은 이 기름 부음(선택함)이 하나님의 선택함이라고 말한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것은 참으로 신기하지 않은가? “당신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성령님께서로부터 오는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받게 된다 - 그가 끊임없는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이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가르쳐주는 정도에 지나치는 것이 아닌,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차원이란 것이다. 이제 눈여겨볼 것은,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일에 이토록 엄숙한 사실이 연루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가?

안에 거한다는 것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나?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에 관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알려진 이유는 무엇인가? 요한1서 2:6은 기록하길,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 거함은 사람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수 있게” 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15:5로 돌아가자,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한다, “내가 덩굴이고; 너희

들은 가지이다: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왜냐하면 내가 없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가지의 오직 한 역할에 대해 공부했다: 열매 맺는 것! 가지는 열매를 맺는 넝쿨의 한 부분이다 - 이 일화의 주제는 아주 명확하다. 그러나 오묘하고 간단한 이 실례가 주는 기별에 대해 연구하기 전에, 이것이 어떤 성과를 거두는지에 대한 기초를 조금 더 확립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안에 거함과 열매 맺기

열매 맺는 것에 관하여 안에 거함은 도대체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제, 요한1서 3:6으로 다시 돌아가면, 기록되길, “누구든지 그 안에 거하면,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 구절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당신이나 나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누구든지 그 안에 거하면,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제 나에게 답을 해보라, 이것이 어째서 사실이 되며, 어떻게 사실이 되는가?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속죄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그 사실을 믿는 것에 대한 것인가? 다시 생각해 보라, 덩굴에 달려있는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 이라고 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덩굴에 붙어있는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다! 얼마나 할 수 있다고? 전혀 없다! 그것이 할 수 있는 오직 하나는 붙어있는 (안에 거하는) 것뿐이다; 그것이 전부이다. 그 가지가 덩굴에서부터 지탱을 받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그 가지가, “자, 이제, 오늘은 다섯 갈런(gallon)의 진(수액,sap)을 받고 싶다” 라고 요구할 수 있나? 아니면 “오늘은 두 컵의 양만 받고 싶다,” 라고 요구할 수 있나? 어떻게 생각하나?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면 가지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그 가지는 덩굴이 주는 것을 그저 받아야만 한다!

“안에 거함”이란 단어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성경 구절에 쓰인 “안에 거함”의 단어는 무엇을 암시하고 있나? 또한 “안에 거하라”란 단어가 명령어로 쓰였을 때는 무엇을 암시하고 있나? 요점은 이것이다: 만약 “안에 거함”이 자연스레 스스로 되는 것이었다면, “안에 거하라”라는 기별 - 명령 - 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인간의 본성은 안에 거함을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정보를 갖는다;

그 사실들을 갖고는 만족의 큰 미소를 진 채 우리가 갈 길로 가버린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바 아닌가?; 영감을 받고는 그 영감이 온 원천을 떠나버린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함이란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필수적인,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요소이다.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 방법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이제 어떤 이는 바로 물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로의 계단(Steps to Christ)* 69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나?’ 라고 당신은 구하는가?”의 문구가 나온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은 그것을 구해본 적이 있나?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골로새서 2:6).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분이 행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마땅히 그렇다. 그것이 바로 요한1서 2:6에서 말하듯 그분과 같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만 온다는 사실이다.

안에 거함: 계속적인 받아들임

위에 말한 책의 저자는 바울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그러므로 당신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 같이, 그렇게 걸으라 …”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과 그분 안에 거하는 것에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당신이 처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 같이,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속적인 받아들임을 뜻한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 자아를 - 적어도 우리의 생각으론 그랬을 것이다 - 내려놓고,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까지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문제는, 말하자면, 그 후 우리의 삶이 계속되면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분 자신을 더 많이 나타내시는데, 그 결과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야 하며, 그분의 형상대로 닮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지가 하는 것이다. 가지에는 나뭇잎이 달리고, 덩굴에서 진(수액)을 받고 열매를 맺는 화학작용을 하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다.

그러나 가지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분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 -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었다. 이제 주목할 것은 이 과정에 우리의 힘이 들어가지 않는 - 말 그대로 - 수월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분 안에 거함과, 열매 맺힘과, 인간의 선행들을 우리가 혼동한다는 것이다.

안에 거함: 주는 것과 받는 것

저자는 계속해서 바울을 인용하여 말한다, “당신이 주 예수를 받아들인 것처럼, 그분 안에서 걸으라.”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 것이니.” “당신이 온전히 그분의 소유가 되고, 순종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다.”¹ 나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하였다고 의심하지 않는다. “당신이 지은 죄를 당신 스스로가 속죄하거나, 그 죄된 본성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드렸기에, 그분께서 이것을 당신을 위해 한 것을 믿는다.”

나는 당신이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당신 마음에는 이것의 정당성에 관한 아무 의심이 없다. “믿음에 의해 당신은 그리스도에게 구속되었고, 또 그 믿음을 통해 당신은 그분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 - 주는 것과 받는 것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주는 것과 받는 것을 통하여.” 그것이 가지가 하는 일이란 말인가? 그렇다. 가지는 무엇을 받는가? 가지는 덩굴에서부터 진(수액, sap)을 받는다; 또한 그는 같은 원천 - 하나님 -에서 햇빛도 받는다. 가지는 쉬지 않고 받는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하는가? “주는 것과 받는 것을 통하여.” 이제 주목해야겠다. “당신은 모든 것을 드러야 한다. - 당신의 마음, 당신의 의지, 당신의 봉사, -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순복할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그분께 드린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야 한다.”

이제 주목할 점은, 덩굴이 얼마만큼의 필요한 재료를 주는지 결정한다는 것이다! 덩굴이 결정한 그 양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특별한 열매를 맺기 위해 얼마만큼의 양이 필요한지 덩굴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염두에 둘 것은 이것이다: “... 그리고 당신은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모든 요소들을 다 - 당신의 마음에 거하시어 당신의 힘이 되고, 당신이 의로움이 되며, 영원한 원조자이며, 모든 축복의 완전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한다.”²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면,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느 각도에서 생각해보아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힘든 과정이다. 나의 삶을 예수님께 처음 드리는 순간은 어렵지 않다. 그리스도를 나에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 어려운 과정이 아니란 소리다. 그러나 그분 안에 계속적으로 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당신은 그것이 왜 어려운 일인지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가?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우리들의 대부분은 이것을 단순히 정신적인 행동으로만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라, 내가 처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행복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하는 마음에 호소하시고 나도 정신적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더 심오한 것이며 우리 삶의 가장 힘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당신은 부인이 물건을 살 때 기다려본 적이 있는가? 그녀가 물건을 살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나? 당신은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올라 기다리면서 말한다, “신발 한 켤레 사는데 어째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나?” 그리고 이것은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자에게도 힘든 일이다. 그녀는 말한다, “면도하나 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담?”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에게 나의 짐을 맡긴다는 것도 역시 엄청나게 힘든 일이다. 왜 그런가?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지적 영역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진심으로, “그래, 내가 저 안에서 신을 고르고 있었다면 나도 당연히 이것저것 따지느라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라고 말할 수 있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이 아니다; 본능적으로 우리의 감정은 상하고, 화가 난다. 확실한 것은 이것이다: 진정한 문제는 그분 안에 거한다 함은 감정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안에 거함과 성령의 열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지가 완벽한 열매를 생산하는가? 우리가 할 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여태까지 말했듯이 -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 - 덩굴에 거하면서 그분이 일을 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이해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그분이 하실 일을 하도록 허락하면, 그 일은 제대로 성사되고, 우리는 그분이 나타내실 수 있게 통과하는 경로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 일에 관여하면, 오히려 그 일을 혼잡하게 만들고 망쳐버린다; 우리는 600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망쳐왔고, 지금까지 지연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열매 맺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말하는 것인가? 열매 맺음은 사실상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뜻한다: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온화함, 선함, 믿음, 겸손함, 그리고 절제가 그것이다.

안에 거함의 부족함과 시들은 가지

일화를 계속해 설명하시며,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한 덩굴이고, 너희들이 그 가지들이며, 나의 아버지가 그 농부이시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항상 마음 속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억하길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간단 명료한 일화이다; 이 덩굴과 가지의 일화보다 더 간단한 것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요한복음 15:6에는 기록하길,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덩굴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는 오직 태우는 것 외엔 쓸모가 없다; 그것은 가치가 없다 - 도저히 아무런 가치를 찾을 수 없단 말이다!

어떤 이는 곧 물을 것이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것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연관되는가? 기억하라,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지극

히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은 사탄이 우리를 통하여 하기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주는 열매를 맺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열매를 맺는 것 둘 중 하나를 하게 된다.

이제 갈라디아서 5:17을 읽어보자. 여기서 성령의 열매와 이미 언급된 다른 영에서 비롯되는 업적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다. 다른 영이 하는 그 일은 갈라디아서 5:17에 나온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의지로 열매를 맺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 그것이 가능한 길은 오직 한 가지이며,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안에 완전히 거하는 것이다.

안에 거함과 열매맺기에 알맞은 환경

이제 19-21절을 연구하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자연스러운런 행동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른 많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덩굴과 가지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그 무엇이 덩굴을 가지로부터 분리되게 만드는 요인인가? 그것은 자아인가? 아니면, 무관심? 가지치는 것? 죄? 덩굴과 가지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당신에게 덩굴과 가지 사이에 문제시되는 것이 사실 다름 아닌 열매라고 한다면, 당신은 놀랄 것인가? 그렇다, 열매, 가지에 달리도록 계획되었던 바로 그것이 덩굴과 가지 사이를 분리 시킨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지에게 오직 열매만 맺으라고 명하셨고, 그것이 가지를 만드신 목적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 계획을 방해하는, 다시말해 가지로부터 덩굴을 분리 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문제는, 알다시피, 우리가 그 가지라는 것이다. 당신은 가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나, “내가 비록 복숭아나무이지만, 요번에는 사과를 맺고 싶다?” “요번에는

살구를 맺고 싶군?” 아니면, 더 현실적으로 예들 들어, 어떤 이가 말한다, “그러니까, 이 열매 맺는 일에 대해 말인데, 이론은 좋으나, 당신은 나의 상황을 이해 못 해서 그렇다. 당신이 만약 내가 사는 곳에 살고, 내가 사는 사람과 산다면, 내가 어찌서 이 상황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이해할 것이다!”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가, “당신, 이 환경에선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생각해보라, 심지어는 과수원 한가운데 있는 가지가 이렇게 말하겠는가, “이보시오, 내가 만약 저 넓고 탁 트인 벌판에 심어졌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있더라도 성공적으로 열매를 맺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덩굴에서 완전히 갈라진 가지를 상상해 보라. 그 분리의 원인은 가지가 심지어, “내 상황에서는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는 상태까지 온 것이다. 내가 대화를 나누어 본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요는, 만약 당신이 내가 근무하는 곳에서 일해야 한다면, 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이해할 것이다.” 이런 말도 들었다, “당신은 목사 아니오, 그리고 당신은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들하고만 상대하지 않소. 그러니 당연히 열매 맺기는 쉬울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한 번 내가 상대하는 사람 - 옥쟁이, 거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상상이 가죠? - 을 대상으로 일해야 한다면, 당신도 아마 힘들어할 거요.” 혹은, “당신이 만약 나의 가족 같은 사람들과 살아야 한다면, 아이들이 당신을 녹초로 만들 것이요. 날마다 그 아이들은 온갖 나쁜 것이라든가 나쁜 짓은 다 한다오. 당신이 그것을 상대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시오.” 그러나 *가지가 처해있는 그 환경은 열매 맺는 것과는 상관없이 없다* - 전혀 아무런 상관없이 없다는 말이다. 사과나무는 설령 그것이 모과나무들 사이에 심어져 있다고 해도, 역시 사과나무이다. 그것이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요번에는 모과나무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다. 우리 자신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으면, 그 환경과 비슷하게 되어야 한다고 느낀다.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핑계를 찾아내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안에 거함, 시련, 그리고 열매 맺기

가지는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것을 반영할 뿐이다. 꽃들이 수분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아니다,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수분을 알아서 해주실 때까지 기다린다. 아무런 노력이 필요치 않다. 그들은 단순히 꽃을 맺을 뿐이고, 수분은 하나님이 그 꽃에 일하시어 이루어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고, 혹은 바람, 혹은 다른 방법일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식물은 아무런 노력을 더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정상적으로 자란다. 우리는 하나님의 단순한 교훈을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의 환경이 열매 맺는 것을 좌우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어떤 이가 물었다, “만약 비바람이나, 폭설, 혹은 다른 기대치 않았던 것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그것이 열매 맺는 것에 영향을 주나?” 그런 요소들이 열매 맺는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일화에 연관지어야 할지, 또는 모든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이 일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지조차도 의문이 간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 일화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다!

이 점을 꼭 주의하기 바란다: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저 앉아만 있을 뿐 생리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교회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다 집에 와서 따뜻한 난로 앞의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것이라는 생각은 갖지도 말라.

기다리는 것 - 그분 안에 거하며 신뢰하는 것 - 은 우리의 감정이 해야 할 한 조건이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지식적으로 한다, 그러나 그 안에 거함은 전적으로 감정의 영역에 관한 것인데, 이곳에서 사실상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주님은 열매가 생길 때까지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신다. 다시 반복하겠다: 주님은 열매가 생겨야 그제야 가지치기를 시작하신다는 말이다! 만약 그분이 열매가 맺히기도 전에 잘라내는 것을 시작하신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난 이것하고 끝이다!” 그러나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분은 잘라내는 것을 시작하시고, 그 결과 더 많은 열매가 맺힌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계속해서 필요 없는 가지를 쳐 내신다. 분명히 어떤 이는 말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아픈 과정을 난 더 이상 원치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잘라내신다. 그리고 마침내 달릴 수 있는 최대의 열매를 맺는다. 이 모든 것은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동안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평안한 상태에서만이 아닌, 시련과 고통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똑같은 이치로 보겠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나 그분 안에 거하는 것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떤 환경이던지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히, 완전히, 그리고 온전하게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점을 계속해서 반복하겠는데, 그 이유는 열매 맺힘을 못하는 이유로 우리가 처해있는 환경을 핑계로 삼거나, 어떤 고통을 그 이유로 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회오리바람과 같은 시련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그것은 우리의 주관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런 것들을 열매 못 맺는 이유로 핑계 댈다. 그리고 기억하라, 우리가 여기서 열매 맺음을 말할 때,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므로; 사랑, 기쁨, 그리고 평화, 등등 (갈라디아서 5:22,23).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반영되지 못하는 핑계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어찌서 당신은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목격하지 못하고, 나는 당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경험하지 못하는지를.

안에 거함과 완전한 의존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핑계를 구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열매를 맺고 안 맺고가 우리의 책임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한다, “나는 열매로 참을성에 대해 노력할 것이다.” “나는 사랑에 대해 노력하겠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느니 죽을지언정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노력하겠다.” 당신은 그런 열매를 만들 수 있겠는가? 어렵도 없는 소리이다! 그러나 마귀는 그 거짓말로 우리를 납득시키고, 우리는 필사의 각오로 그렇게 하려 한다. “좋다, 정말로 마음에 내키지는 않으나 내 부인(남편)을 사랑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편과 부인들로부터 수없이 들어왔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이다.

그러나 우리가 덩굴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사랑이 흘러나온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모두 받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먼저 받아야 한다 - 하나님 없이 이 일을 할 수 없다. 당신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그 의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덩굴에서 떨어져간 가지는 무엇에 쓸모 있나? 그것은 썩음으로만 족하고, 다른 어느 것에도 쓸모가 없다. 그 가지는 얼마 동안 타다가, 소량의 열을 발생시킨 후, 없어져 버린다 - 그것이 그 가지의 운명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통하시려던 기별이다. 이 일화는 너무나도 간결하고 완전한 진리이기에 우리가 오히려 그대로 믿기에 아주 어려운 것이다.

가지의 완전하고 온전한 의존. 즉, 이 가지는 덩굴 안에 거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성경 구절로부터 당신이 기억하고 기록해 두었으면 하는 기별은, 가지는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열매 맺지 못하고,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루 스물네 시간, 일 년 365일 쉬지 않고 계속 덩굴 안에 거해야만 한다. 오직 안식일이나 주 중의 예배 때만 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매 순간 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가지가 덩굴에 거하는 이상 열매를 맺지 않으려 해도 맺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의한 의로움이다.

Notes:

- ¹ Ellen G. White, *Steps to Christ* (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56), p. 69.
- ² *Ibid.*, p. 70.

토의 문제:

1. 요한복음 15:1-8의 핵심은 무엇인가?
2. 가지치기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
3.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되나?
4. 가지가 “주고 받는다”는 무슨 뜻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현실적인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나?
5. 덩굴과 가지사이의 연결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6.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 그 주변 환경은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7. 가지의 기능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8.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변명)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

2 장

안에 거함과 가지치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1-8).

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시고, 마지막 만찬을 그분의 제자들과 마친 후에 하신 말씀이다.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른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셨으나, 곧 그 내용은 끝내시고, 제자들을 어두운 밖으로 데려가셨으며, 마침내 겿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하셨다. 그곳으로 가는 도중 그분은 아름다운 포도밭을 지나가게 되었다.

포도덩굴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포도덩굴로 이해하

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 오해를 바로 설명해 주시려 했기에, 달빛에 흠뻑 젖어있는 탐스러운 포도덩굴 앞에서 발길을 멈추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한 덩굴이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덩굴이라고 믿고 있는데, 평생시 많이 이용하셨던 예수님의 방법인 일화를 이용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진정한 덩굴이고 그분의 아버지가 농부라고 단호히 말씀하신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요한복음 15:2).

우리가 지난번에 이 주제를 다루었을 때, 가지의 용도에 대해 공부했고, 가지의 오직 유일한 용도는 열매 맺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덩굴은 그 목적을 위해 가지를 도와주고, 가지는 열매가 맺히는 것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 그곳에 붙어 있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자면, 열매 맺는 것이 가지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또한 우리는 열매 맺는 분야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며,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성공하는 오직 한 길은 덩굴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임을 공부했다. 가지는 어떤 노력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는 덩굴 안에 거하는 일 하나만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힘들게 에너지를 소비하며 이렇게 다짐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는 포도 한 송이를 맺어야겠다.”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자연히 열매를 맺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덩굴이다. 덩굴은 뿌리를 내리고 덩굴손을 뻗는데, 아주 멀리 뻗어나가는 경우도 있다. 덩굴의 작은 뿌리들은 흙 안에서 영양분과 물기를 찾아서, 그것을 영양이 가득한 진(수액, sap)으로 전환하여 덩굴을 통하여 가지로 보낸다. 그러면 가지는 진(수액, sap)을 받아서 무엇을 하나? 가지는 받은 그 진(수액, sap)을 더 멀리로 전달한다. 그 진(수액, sap)은 가지를 거쳐 앞으로 가기 때문에 가지는 여전히 통로일 뿐이다. 이제 그 앞은 생명력을 주는 햇빛을 받고, 그 빛은 잎 안에서 화학작용을 시작한다. 이 어느 과정에서 진(수액, sap)이 가지를 통하여 전달된다는 사실 외에 가지에게 의존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여기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대단히 중요한 기별들이 있다.

가지의 진정한 시험은 열매 맺기이다. 만약 그 가지에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 가지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며, 성경은 기록한다, “농부는 가지를 없애버린다.” 여기서 주

의 깊게 봐야 하는 점은 2절에 있는, “나의 안에 있는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가 잘라낸다.” 그 구절 안에 왜 “그”가 있는지 의문이 간 적이 있는가? “그”는 누구를 뜻하나? 그는 농부를 뜻한다. 농부는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쓸모없는 가지를 없애 버리신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의 대부분은 가지치고 다듬어 내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하고 싶어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예수님께서 주신 기별, 마태복음 7:15,16, 그리고 20 과 연관 지어보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며, 열매를 놓고 봤을 때 그 결과가 어때야 하는지가 명확해진다. 15절과 16절을 읽어보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제 20절로 가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의 있고 없음을 알아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에게서 우리 자신을 농부로 생각하고 잘라내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하려는 성향이 있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묻는다, “주님,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 버릴까요?” 예수님이 그 당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주의 깊게 보라: “추수할 때까지 자라나도록 그냥 두어라.” 그러면 누가 잘라내고, 분리하고, 잡초 뽑는 일을 하는가? 오직 농부가 한다. 왜냐하면 뽑아내는 일은 하나님의 책임이지 우리의 책임은 아니다. 나는 이 사실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린다. 그런데 당신도 동의하겠지만, 사람의 눈으로 열매가 있고 없고의 여부를 구별하기는 힘들다- 바로 그것이 왜 사람이 잘라내는 일을 하면 위험한 것인지 그 이유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에 따라 가지의 진실성을 알 수 있다고 하셨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선지자들이 어떤 것을 주장할 때, 우리는 “그들의 열매의 존재를 보고 정당성을” 알 수 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맺는 열매를 성경 말씀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의 존재 여부를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의 존재를 감지했을 때, 우리 스스로 이루어 놓은 것이 라곤 - 이점을 꼭 명심하기 바란다 - 그저 우리의 지식이 좀 더 더해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심지어 우리의 지식이 조금 증가했다라도, 심판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심판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맡겨져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까

지 우리는 “그 열매의 존재를 보고”가 우리의 잣대로 주어진 것을 공부했다. 이제 그다음을 읽으면, “어떤 가지라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가 잘라낼 것이다.”

단 한가지 용도

앤드류 뮐리 (Andrew Murray)³의 책, *The Mystery of the True Vine*, 에서 말한다: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를 잡고 넘어가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중요한 것으로 자신의 영혼 구원을 꼽고; 두 번째로 그들 현세의 삶과 부, 그리고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을 들고; 그 후에 만약 시간이나 에너지가 남으면 열매 맺음과 다른 이들의 영혼 구원에 쓴다. 어쩌서 대부분의 경우 열매 맺는 것에 쓰일 시간과 에너지가 별로 없는지 그 이유가 거기 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신이 하나님 구성원의 하나로 만들어진 오직 한 목적은 당신을 그분의 영혼 구원 사업에 쓰시려고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지로 만드신 오직 한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시려는 것이다. 당신 자신의 영혼 구원, 당신 현세의 사업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것의 후순위에 온다.”⁴

나는 당신이 위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짐작한다. 그중 한 부분을 반복하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지로 만드신 오직 한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내가 덩굴이요, 너희가 가지들이니라,” 그분의 당신을 위한 한 목적은 당신이 가지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무엇을 통하여? 열매를 통하여! 누군가가 덩굴에 와서 영양분을 찾을 때 그것을 공급하는 것은 열매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열매를 세상 사람들에게 공급하여 예수님을 알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지로 만드신 오직 한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시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

의 형상을 완전히 반영하기를 기다리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닐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인간은 직접 눈에 보여야 무엇을 믿게 되고, 마찬가지로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에게 오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지로 만드신 오직 한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시려는 것이다. 당신 자신의 영혼 구원은...” - 여기가 바로 우리가 실패하는 부분이다 - “당신 자신의 영혼 구원, 당신의 현세의 사업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것의 후순위에 온다.”

이것은 광범위한 진술이라 할 수 있다. 나 자신과, 나의 가족, 나의 자식들을 돌보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다. 내 가족을 돌보는 것은 나로 하여금 고귀하고 좋은 일을 성취한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하는데, 그 이유는 자기 가족을 잘 돌보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 실제로 그것은 훌륭한 일이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리의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의무인가? 열매 맺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나 자신의 영혼 구원이 아닌 열매 맺는 것이다. 만약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적으로 나의 영혼 구원이었다면, 그분과 나의 관계는 이기주의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내가 그분과 관계 맺는 목적이 그분 안에 거하고, 신실하게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것이라면, 요한복음 15:5절에 나와있듯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게 된다: “내가 덩굴이요, 너희는 가지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가족이 무시된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족은 돌봄을 받을 것이고, 당신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의 이득을 첫 번째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 삶에 있어서의 첫 번째 목적과,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분의 목적을 어떻게 성취하실까를 아는 것 -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목적이다. 당신은 매일 아침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일이 그분의 하늘 아버지로부터 그날 어떤 것을 성취할지 간구한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는가? 우리의 첫 번째 일도 같아야 한다: 매일 아침 처음에 할 일은 그분께 지도를 받는 것이다.

열매가 많이 달리는 가지

앤드류 뮐리 (Andrew Murray)가 한 다음 말을 연구해 보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기를 시작하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응답하자. 내가 가지가 된 오직 한 목적, 내가 진정한 가지라는 그 한가지 표시,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고 거기서 성장할 수 있는 한 조건은, 죽어가고 있는 인류가 내게로 와서 생명의 열매를 먹고살 수 있게 하늘 덩굴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내가 절대적으로 확약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나의 덩굴로,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농부로 삼으면, 나는 진실로 열매를 맺는 쓸모 있는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⁵

그 어느 누구도 자기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없다고 느낄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이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만약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농부는 그 가지를 잘라내 버리신다고 했다. 그러나 그 농부는 그분의 방법대로 그리고 그분의 시기에 맞추어 잘라내신다 - 그것은 우리가 참견할 일이 아닌, 그분이 하실 일이다. 그런데 그분은 열매 맺는 모든 가지를 가지치기하신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열매 맺는 일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속임수에 잘 넘어갈 뿐 아니라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것의 참뜻을 오해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길, 만약 그 가지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더 많은 열매가 그 가지에 달리도록, 그분이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하셨다.

위험한 안일주의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위험은 - 나는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위험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 바로 안일주의이다. 당신을 그것을 믿는가? 아마도 당신은 물을 것이다, “안일주의란 말을 쓰다니, 무슨 의도인가?” 요한계시록 3:14-18의 라오디게아 교

회에게 보내는 기별이 그 답을 제공한다. 그곳에서의 문제는 무엇이었나? 미적지근함 이었다. 차지도 답지도 않은 현상의 문제는 역사상 많은 교회들에게 있어왔으나, 특히 오늘날의,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한, 교회에게 있는 문제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 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적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요한계시록 3:14-18).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언젠가는 꼭 생기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소량의 열매를 맺었다고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 구원의 기쁨을 조금 맛보았다고 느끼고,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조금 만끽하고, 이 모든 경험에 대해 환희를 느낄 때, 그는 거기 안주하고 그 작은 경험의 추억을 끝까지 기억하는데 만족한다. 그는 그것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나,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진보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 그러나 가지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하고, 농부는 더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그 가지에 가지치기를 시작한다.

가지치기와 열매 맺기

그렇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누가 “더 많은 열매”를 생산하는가? 가지치기나 솥아내는 것의 과정이 이루려는 목적은 오직 하나이다: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에 있도록 끌어들이, 우리가 그분의 열매를 더 잘 반영하는 더욱 효과적인 도구가 되는 것 - 그것이 바로 그 목적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은 누가 가지치기를 하며,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지속되는 그리스도와의 결합은 살아남는다; 다른 모든 결합은 없어져야 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한정의 값을 치르심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고; 진정한 신자는 그리스도를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가장 귀중한 것으로 선택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결합을 위해 값을 치러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만스러운 존재인 우리가 완전히 의존해야만 하는 그 결합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⁶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만스러운 존재인 우리가 완전히 의존해야만 하는 그 결합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어떻게 자만심에 영향을 끼친단 말인가? 우리는 자존심이 있는 존재이다! 우리 모두는 자만하고,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으며, 이 자만심에서 벗어나는 단 한가지 방법은 가지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이다. 가지에게 주는 힘의 원천은 오직 한 군데 있다. 그 원천이 무엇인가? 덩굴이다. 덩굴이야말로 우리의 힘의 원천이며 오직 하나뿐인 원천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원천에서 힘을 얻으려 하나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진정한 원천을 제외하고 모든 곳을 찾아다닌다. 우리는 제니 이모에게 가고, 토마스 삼촌에게 간다. 우리는 진실로 그 힘이 오는 곳은 빼버리고 모든 곳을 찾아다니며 답을 찾으려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읽는다. 그리고 그 힘을 찾으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본다, 덩굴만 빼고 말이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는 덩굴이 제시하는 문제의 답이 맘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더 마시라.

가지는 덩굴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가?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가지가 덩굴로부터 끊임없이 받는다 - 그것이 가지의 용도이며, 단순히 덩굴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같은 방법이 작용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 자만심이 강한 존재가 들어가야 하는 결합 관계”라고 하신 이유이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이것은 겸손을 요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는 겸손해야 한다: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덩굴에서 잘라진 가지는 모아져서 불에 타는 것 이외에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사람을 겸손케한다.

이제 더 읽어보면, “이 결합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⁷ 그것은 생명의 피이다. 가지는 생명을 주는 진(수액, sap), 곧 그리스도의 보혈, 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만약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냄, 그리고 부활이 당신과 나에게 현실이 아니라면, 만약 갈보리에서 흘려진 보혈이 당신과 나에게 현실이 아니라면; 만약 이 모든 것이 당신과 나에게 현실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생각의 중심이 아니라면, 우리의 종교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덩굴에 연결되어있는 것이 아니다. 기억하기 바란다, 그리스도가 진정한 덩굴이며, 우리는 그 덩굴에서 힘을 얻는다, 그리스도에게서 그 힘을 얻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도 또한 우리가 접붙이기를 통하여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상처를 받으셨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 바울은 그 접붙이기 과정, 우리가 덩굴 안에 접붙이기 된 과정, 을 로마서 11:17에서 말한다. 어떤 가지를 새 덩굴에 접붙이려 할 때, 그 덩굴에게 처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상처를 내야 한다. 덩굴에게 심한 상처를 낼 정도로 크게 흠집을 낸 후, 그곳에 가지를 접붙이게 된다. 그러므로 접붙여진 가지는 덩굴에 상처를 내는 결과를 통해 생명을 받게 된다.

나의 삶과 당신의 삶의 생명력은 보혈에서 비롯된다 - 다른 어느 곳에서 올 수 없다. 그분의 보혈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그분이 허락하시는 힘이다. 그분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하고 전능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 아니고, 혹은 그분이 죽은 자들을 기적적으로 다시 살어나게 하신 것 때문도 아니다 - 그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오직 한 사실은 신(神)의 신분을 가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 상처를 받으시어 - 나로 하여금 그분 안에 접붙게 하여 생명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위하게 우리가 한 어떤 선행의 결과에서 나의 삶이 힘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단 한 가지의 생명의 원천은 진(수액, sap)을 마시는 것,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한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생명의 원천을 찾을 수 없다! 만약 우리가 그곳에서 힘을 받지 않는다면, 단순히 못 받는 것이 된다.

계속해서 읽자, “그들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⁸ 누구를 말하나? 가지를 말한다. 전에 속했던 덩굴에서 잘려 나와 진정한 덩굴에 접붙여 들어간 그 가지는 이제 새 삶의 원천을 받게 되고, 그 덩굴에서 받는 영양분을 받아들이면서 새 종류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가지는 새로운 경험을 할 것이다 - 새로운 마음(본성)이라고 불리는 이것 -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본성)이 그 가지에 삶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가지치기와 복종

그다음 구절은 말한다, “그들은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순복시켜야 한다.”⁹ 이곳이 바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다. “그들은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순복시켜야 한다. 이것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이 과정은 접붙여서 다른 것에 붙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본래의 것에서 떨어져 나와야 하는 아픈 경험도 거쳐야 한다.” 무엇에서 떨어져 나와야 하는가? 바로 자부심이다 - 제일 처음에 당신이 깨닫는 것이다. 기억하라, 덩굴과 가지의 그 결합 관계를 읽었을 때, “자부심이 강한 존재가 맺어야 할 관계,”라고 했고, 우리는 그 오래된 자부심의 근원에서, 자부심이 자라는 덩굴에서 잘라져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 자부심과 같이 없애야 할 것들을 추가하면, “이기심, 허영, 세속적인 것 - 여러 가지 형태의 죄 - 을 극복해야 한다...”¹⁰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자만심(자부심), 이기심, 그리고 여러 형태의 죄의 근원을 잘라내야 한다 -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성경에서 말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렇기에 타협이란 없다. 우리는 이 세상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모실 수 없는 것이다; 두 개를 섞을 수 없다. 그 두 개는 정 반대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이들이 자기는 한 손으로 세상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며, 전혀 불가능 한 것에 도전하는 셈이 된다.

계속해 읽겠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하고자 한다면, 자부심, 이기심, 허영, 세속 적임 - 여러 가지 형태의 죄 - 를 극복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이유이며, 변덕스러운 이유이다...” 변덕스럽다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변화가 쉽게 오고, 안정적이지 못하며, 말과 행동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 이유는 ...” - 나는 이리저리 돌리지 않고 “이유는 바로...”라고 명확하게 요점으로 바로 가는 말들을 좋아한다 -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고, 어째서 그들이 변덕스러우며, 한결같지 않은 이유는,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대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에게 붙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¹¹

가지의 무력함

문제는 이 문장의 처음 부분,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붙이려고 노력하는 부분에서 명백해진다. 가지가 덩굴에게 접 붙여질 때, 그 일을 하는 것은 누구인가? 농부가 한다. 문제는 내가 내 스스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하려 할 때 생긴다. 그리고 당연히 내 방식대로 덩굴에 붙일 때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단계인 접붙이기 과정을 택하지 않는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왜냐하면 가지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 덩굴도 심하게 상처를 입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덩굴에 접붙여 들어가려면, 나도 심하게 깎여야 - 상처받아야 - 하기 때문이다.

접붙이기할 때 이미 열매를 잘 맺고 있던 큰 가지를 잘라 다른 덩굴에 그냥 붙이지 않는다. 그 가지를 자르고, 깎고, 베어내어 덩굴의 상처에 잘 맞출 수 있게 만든 후 그것을 덩굴에 끼어 맞추어 감는다. 그 결과, 가지는 그 전과 다른 종류의 영양분을 받게 된다. 만약 내가 이것을 내 스스로 했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과 내가 그냥 같이 걸읍시다.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신실하고 내 생각엔 성공할 것 같은데, 중간에 도움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이다. “그냥 가까이 계십시오, 주님, 왜냐하면 내가 실수할 때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테니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나를 떠나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제자들의 무력함을 보게 하려고 노력하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무력함을 이해하는가? 진실로 이해하는가?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그 무력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보면 그것에 대한 감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완전히”란 말의 뜻은 무엇인가? 극도의; 그 뜻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뜻한다.

조건없는 순종

다음의 진술을 보자, “그 사람의 마음이 조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까지 그 사람은 올바른 덩굴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¹² 다시 반복하겠다, “그 사람의 마음이 조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까지...” 조건 없이 순종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아무 거리낌 없이 행복하다는 뜻이다. “그 사람의 마음이 조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까지 그 사람은 올바른 덩굴에 거하는 것이 아니며, 그 안에서 성숙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람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이며, 그것은 조건 없이 덩굴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자. 열매 맺는 가지는 처음에 잘라냄을 받는다. 잘라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가지가 다듬어(가지치기)질 때를 말한다. 하나님이 다듬거나 잘라내는 과정에서 쓰시는 도구는 무엇인가?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이라고 한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사람은 거의 가지치기의 경험을 받지 않는 것 같다. 또 어떤 이는 그것은 “평탄한 길”이라 하는 반면, 어떤 이는 “고행의 길”이 그것이라고 한다.

가지치기와 하나님의 말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가지치기의 도구로 시련과 고통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다고 믿는 것은 주목해 볼 만하다. 솔직히 말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우리는 이것에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5:3에서 그것과 완전히 다른 것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제외한다면 당신

은 놀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 안에 거함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분의 말씀, 만이 하나님께서 가지치기에 사용하시는 칼(도구)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확신한다 - 나는 이 답변에 충분히 만족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시련이나 고뇌가 있을 것이나, 그것이 우리를 신경 쓰이게 하지 않는다. *시련이나 고통에 관하여 우리를 방해하거나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방법이다.* 당신은 그것을 믿는가? 내가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가? 이제 생각해 보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문제들은 일어나기 마련이고, 우리는 그 해답을 찾고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며, 명확한 해결책을 얻는다. 대부분의 경우 그 해결책은 “나를 믿으라,” “내 안에 거하라,” “나를 신뢰하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차라리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하여 무언가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수월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해결책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오직 한 힘의 근본은 어디에 있나? 바로 성경 말씀과 그것이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 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힘의 근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곳에서 답을 구하려 한다. 우리는 제니 고모와 토마스 삼촌에게 가서 묻는다.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모든 곳을 찾아다니고, 모든 것을 읽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다 시도해 보나, 정작 덩굴에는 가지 않는다. 어째서 그런가? 덩굴이 주는 답이 싫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더 마시라.

성경은 오직 한 가지를 밝힌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주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 한 주제는 당신과 나를 위한 예수님의 생애와 당신과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 한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는 당신과 나의 생애를 형성한다. 그러나 가지는 그저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 안에 거하고, 완전히 신뢰하는 것 외에 할 일이 없기에, 그 이야기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 그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스릴도 화려함도 없으며; 당신이 큰소리로 여기저기에 광고할 만 한 것도 아니다. 단순히 그 안에서 쉬고 믿는 것뿐이다.

가지치기와 감정주의

예수님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셨으며, 제자들에게 곧 일어날 그들의 인생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적 경험에 들어가기 전 이것을 이해시키려 하셨다. 몇 시간 후에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 가장 우울한 큰 봉변을 겪을 처지에 있었다.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은 죽으실 것이고, 그들은 너무나 크게 낙심한 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리라 믿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미리 그들에게 이 일이 일어날 때 덩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들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그러나 너희들이 덩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 너희들의 감정은 극복 될 것이고,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통제하는 대신 우리가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을 때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 자신이든지 당신이든지, 아니면 그 누구든지 간에, 나의 감정이 상할 때는 - 나의 감정도 당신의 것처럼 아주 예민하다 - 나의 힘과 기쁨이 - 즉 성령의 열매 - 덩굴로부터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 나는 다른 원천에서 힘과 기쁨을 얻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만약 그것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으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있을까? 만약 그분이 나의 용기와 기쁨의 원천이라면,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이 있을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확신을 갖고 말한 이유이다, “세 번 파선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그리고 다음 말로 끝낸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1:25-28). 이것 중 어느 하나의 경험도 바울을 신경 쓰이게 하지 못한 이유는 그는 자기 생애의 진정한 힘의 원천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 원천은 오직 덩굴이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주제이다.

우리가 덩굴 안에 거하는 것을 배운다면, 근원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풍랑도 우리를 뒤흔들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대답해 보라: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감정 때문에 우울하고 기분 상했나? 언제 마지막으로 감정 때문에 무엇을 할 의욕을 가졌는가? 언제 마지막으로 당신은 어떤 느낌 때문에 무엇

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속박된 노예들이며, 사탄은 우리를 죄짓게 하기 위하여 이 사실을 이용한다. 덩굴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이 감정의 문제를 해소할 길은 없다 -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덩굴 안에 거하면, 그 감정들은 달아나버린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요한복음 15:3). 당신이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을 알고자 한다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믿기 때문에 이제 정결하다.” 제자들은 그때 당시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몇 시간 후에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그 사실의 결과를 더 목격했다! 상황은 많이 달라졌고, 그들은 그제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쉽게 동요되는 감정 - 지금까지 공부해 온 내용 - 때문에 고민과 갈등하던 이 사람들이 강하고 신신할 일꾼들이 되었다; 심지어 더 이상 충실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사람들이 되었다. 베드로 - 한순간에는 불끈한 감정을 갖고 있다가 다른 한순간에는 인정 없었던 사람 - 는 하나님을 위한 충신이 되었다. 어떻게 그 변화가 가능했나? 그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배웠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배웠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고; 주님을 믿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당신이 덩굴 안에 거하는 것을 배우는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란다.

Notes:

3. Andrew Murray wrote some very interesting worthwhile material. Among his books are *The Mystery of the True Vine and Abiding in Christ*.
4. Andrew Murray, *The Mystery of the True Vine* (London: NIsbet, 1898), p. 33.
5. Ibid.
6. Ellen G. White, *Messages to Young People* (Nashville, TN: Southern Publishing Association, 1930), p. 118.
7. Ibid.
8. Ibid.

9. Ibid.
10. Ibid.
11. Ibid.
12. Ellen G. White, *Sons and Daughters of God* (Hagerstown, MD: Review and Herald, 1955), p. 288.

토의 문제:

1.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로 만드신 단 하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2.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안위 주의는 어떤 면에서 위험한가?
3. 가지치기의 목적은 무엇이며 가지치기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4. 덩굴 안에 거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항복이 필요한가?
5. “감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3 장

안에 거함과 매일의 삶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자.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음에 이르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귀중한 가르침에 대해 연구해 왔다.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그분의 유언이며 마지막 말씀이었다. 그분은 이 레슨을 제자들에게 주신 시점은 다락방을 떠나셔서 게세마네 동산에 돌아가시기 전이었다. 그분에게는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길어야 두 시간이었다.

달 빛에 아른아른 비추는 포도 덩굴에, 유대인들이 자신과 자기의 민족에게 적합한 상징이라 생각한 포도 덩굴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시어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신다, “내가 참 덩굴이다.” 그것을 들은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고 멸시당하던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참 덩굴이라 일컫는 것은 충격적이고 듣기 거부하였음이 틀림없다.

이 대화는 요한복음 15에 기록돼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당신 스스로가 참 덩굴이고 그분의 아버지께서 농부라고 하셨다. 두 번째 절에서는, 과일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 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통하여 더 많은 과일을 맺는다고 하셨다.

세 번째에는,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나타내셨다: “너희들은 내가 말한 것을 통해 정결하게 됐다.” 이 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온 말씀은 오직 한가지 만을 가르친다는 것도 배웠고, 그것은 바로 그리

스도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39).

요한복음 15:4,5를 같이 읽어보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치기: 필수이며 계속되는 과정

이 구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덩굴에 가해지는 가지치기 혹은 잘라내는 것을 복습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포도밭에서 일해 본 적이 있다면, 내가 무엇에 대하여 말하는지 알 것이다. 우리 가족은 한 번 포도밭이 있었는데, 농장을 돌아다니며 모든 가지를 치는 일이 큰일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정신적인 가지치기 역시 큰 작업이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지치기를 하는가 뿐 아니라, “누가” 그 가지치기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이 그 작업을 하는가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말씀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왜 그런가?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라내야 할 어떤 것을 찾아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것에 대항하여 논쟁하고, 그 대신 합리화하여 말한다, “내 생각으로 그것은 스미스 씨한테는 맞지만, 존스 씨한테는 맞는 것 같지 않소.” 우리는 하나님의 권면을 다른 이들에게 적용하려고 애쓰고 나에겐 적용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인지시키고 그 해결책을 보이기 위해 직접 말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이 간절히 필요하다.

가지치기는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오직 한 방법은 새로이 얻은 지식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다. 성경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 배운 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었을 때, 그때야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그 결과로 열매가 달린다.

열매 맺음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 열매 맺음은 말하자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란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어진 마음, 선행, 믿음, 겸손함, 그리고 절제라고 말 한 바로 그것을 뜻한다(갈라디아서 5:22).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열매 - 바울은 이 예를 들었을 때, 단수 형을 썼다 - 성령의 열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모든 것을 반영하고, 이 열매 맺음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누가” 그 작업을 하여 더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가도 알아야 한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덩굴이다. 그러나 아무리 덩굴이 열매를 맺히게 해도, 가지가 그 덩굴 안에서 붙어있지 않고, 그 결과 그것이 주는 영양분을 받지 않으면 - 왜냐하면 가지는 덩굴이 빨아들이는 영양분을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이기 때문에 -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계획이었다.

상호간의 거함

그러나 여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참 덩굴이고 우리가 그 덩굴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지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언급한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라는 부분이 나올 때까지 읽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통행이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연관을 맺고 그것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어떤 기관에 속함을 통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구원의 확신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속함은 영혼 구원이나 진정한 구원의 확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뿐 아니라, 그분 역시 내 안에 거함에서 오는 것이다 -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오는 원천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 열매를 증가시키신다는 것을 명백히 나타내시지만, 그 열매는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함의 결과라는 것도 밝히신다.

열매 맺음과 율법 준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구절들과 계시록 22:14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을 어떻게 비교할까,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 구절은 재림 교인들에게 확고한 용기를 북돋아주는 구절로 여겨졌으며, 오랫동안 그들의 자부심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했다. 현대 번역판들은 이러한 해석을 한다, “복받은 자들은 그들의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번역본과 다르며 어떤 사람들의 귀를 거스르게 한다. 그러나 이 역시 고대의 초본 중에 하나로, 그 번역본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 사실상, 이 두 번역은 같은 것이다.

당신은 성경의 이 두 구절들을 어떻게 비교하고 설명하겠는가? 이 구절들에는 무엇이 언급되었나?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5). 그분은 또 말씀하셨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4). 계시록 22:14에서 우리는 발견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우리는 이 두 개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그들은 서로 모순되는 것인가? 서로 반대되는 것인가? 어떻게 그 두 개가 일치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만약 어느 사람이 자신은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자기를 조롱하는 것 밖에 되지 않으며 불가능을 시도하려는 웃음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한편으로 율법을 가르치며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이것의 예로 적격이다. 그들은 “너희는 살인하지 말 지며,”라는 법

을 믿고 있었으나, 동시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 방식대로 해석하려고 할 때 생기는 어리석은 인간의 논리의 결과이다. 하나님의 원칙은 오직 성령님이 우리의 올바르게 진실된 경험에 함께 거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원칙을 우리에게 해설해 주실 때 제대로 이행될 수 있다.

마가복음 12:29-31을 보면 이렇게 적혀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당신은 이것이 십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의 확장된 의미라는 것이 보이나요? 당신 자신에게 솔직하길 바라며 묻겠습니다. 당신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나? 당연히 지킬 수 없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오직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하셔야 가능한 일이다; 당신에게는 단순히 그것이 불가능하단 말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히 “의지”에 주관되고 있지 “길 (way)”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의지”와 “길(way)”이 조화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나, 인간이 “길(way)”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인간이 조정하는 것은 “의지”이고, “길(way)”은 성령님께서 조정하신다. 그러나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실족하는 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해야 할 바를 해달라고 요청한다.

하나님을 운전 자리에 모시는 일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안한 요소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방법에서 우리를 꺼내어 -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듯이 - 우리 자신을 운전자 석에 놓는다.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싶어 하는 바람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응답하신다는 것이

다; 그분은 저항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운전”하시지만, 언제라도 우리가 그 운전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분께서는 단순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신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는가, “아니다, 하지 마라, 너의 어리석음을 생각해보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길을 감독하고 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네가 운전하면 도랑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며, 아무 말씀 없이 옆자리로 옮겨 가신 후, 나에게 운전하도록 허락하신다. 나는 결국 도랑에 빠진 나를 발견한다. 이런 일이 비밀비재하다.

어쩌면 당신은 도랑에 빠진 적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빠진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운전자 석을 차지해서 그랬을 것이다 - 그것이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운전자 석을 차지할 때마다 나는 결국 도랑에 빠진 나를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나를 구출해 주신다. 우리가 급기야 우리 자신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까지 그것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다.

하나님을 극도로 사랑함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요한복음 15:12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것을 이수한 후 줄 수 있는 사랑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나?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첫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이다.

그 두 번째 계명의 심오한 뜻은, 심지어는 성경 안에서조차,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한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명을 받은 언어로 쓰였지만, 그 말들은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며, 인간의 발명품이기에 현세의 것을 설명하는 데에만 적합하다. 첫 번째 계명의 깊은 뜻을 완전히 이해하려 할 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 안에 함축된 모든 것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능함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이 계명이 실행될 때 나타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살아있는 설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간단하고 쉬운 표현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너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은 똑같은 사상을 다른 말로 나타내셨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34; 15:12).

어떻게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더 쉽게 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해야 할 것은 단순히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그리스도의 인생을 연구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 속에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 실증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교리, 모든 권면, 그리고 삶의 모든 경험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다. 거기에 어느 하나라도 빠진 것이 없다. 만약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말씀을 보라.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39).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 - 구원의 계획을 통한 그분의 인류를 위한 업적 - 는 구약에 설명되어있는 희생양 제도의 그림자로 나타나있다;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있다. 그분이 속죄 양이셨다; 그분이 바로 희생 제물이셨다. 성소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는 그리스도의 인생을 그리고 있었으나, 예수님 시대에는 오직 소수의 사람만 그것을 이해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목적을 구약에 나오는 희생제도에서 나타난 그림자로 그려진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에 직접 표현되고 입증된 것을 찾을 수 있다.

꼭 필요한 임무

요한복음 15:4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 가지의 진정한 임무는 무엇인가? 거의 모든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 그 임무가 열매 맺는 것과 덩굴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제시한다. 열매 맺음에 관하여 볼 때, 우리는 마지막 결과와 열매 맺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마지막 결과물에 너무 초초해한다. 오로지 소수의 사람만 자연적으로 참을성이 있다. 당신이 아는 참을성(인내)이 많은 사람은 얼마나 되나? 나는 아직도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참을성이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진정한 인간적 인내는 주님 예수께서 인간의 마음에 거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이다. 사람은 어떤 일들을 참아낼 수는 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참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그 일에 침투하여 성사 내고 싶어 한다;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기다리려 하지 않는다.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 문제점은, 마지막 결과물을 고려했을 때, 당신과 내가 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덩굴에 연결돼있는 것뿐이다. 열매 맺는 것에 대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당신이 더 많은 잎을 만들 수 있나? 당신 혼자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당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나?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할 임무는 오직 하나: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덩굴 안에 붙여 넣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당신은 언제든지 원하면 운전자 석으로 옮겨갈 수 있고, 그 덩굴에서 당신을 제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것에 관해 당신을 성가시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반대하지 않으신다. 그저 옆으로 옮기시고 어떤 일이 생기는지 당신에게 직접 보게 하신다. 그러므로 당신은 원한다면 언제든지 덩굴에서 당신 자신을 제거할 수 있으며, 우리의 대부분은 수 백번 그 안을 들락날락 해왔다.

생명 원천(근원)에서 분리 됨

지금까지 연구해온 안에 거함과 열매 맺는 것에 대한 진정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한번 반대의 각도에서 주시하며 질문을 던져보자, “어떤 분야를 사탄이 가장 적극적으로 방해하고있나?” 그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을 공격하나, 아니면 열매 맺는 부분에 대하여 공격하나? 그의 목적은 당신과 하나님의 연

결된 것을 끊는 것이다. 사탄은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을 잘 알고있다. 그가 당신을 열매 맺는 것에 집중하도록 유혹할 때, 그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시지 않은 열매를 맺으려 하는 것이며, 또한 당신으로 하여금 참덩굴안에 거하는 대신 당신 자아안에 거하게 하려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맺는 대신, 독선주의(self-righteousness)를 낳게된다. 의(righteousness, 義)에 열매를 맺는 오직 한 방법은 -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 불렀다 - 덩굴안에 거함을 통해서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독선을 맺게된다. 우리중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열매에 집중하게 만들려 하나, 사실상 그의 목적은 우리를 생명의 원천에서 분리 시키려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재림 때 사람들이 그분에게 접근하여 한 말을 설명한 성경 구절에 분명히 묘사돼 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우리는 당신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당신의 힘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쫓아냈고, 병든 자를 고쳤으며, 당신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이럴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22,23).

덩굴 안에 있으나 진정한 거함이 아님

명백한 것은 덩굴 안에 있긴 하지만 진정으로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아마도 그 상황(안에 거함)을 묘사하는데 알맞지 않은 말을 쓰기 때문에 생긴 혼돈으로, 그 말의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6).

이 장면은 미래에 있을 묶어놓은 - 잘라진 가지들 - 것을 모아 태워버리는 것을 묘사한다. 이것은 덩굴 안에 계속 있기는 하나 진정으로 거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나는 “안에 거함”의 여러 가지 뜻을 얻기 위해 웹스터 사전(Webster’s) 찾아냈다. 나는 내가 찾아낸 것에 대해 깜짝 놀랐으며, 그중 네 가지의 정의를 받아 기록했다: “포기하지 않고 참는 것,” “참을성 있게 견디는 것,” “반박 없이 받아들이기,” 그리고 “동요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 이 정의들의 어는 것에 대해서도 유익한 토론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나는 우리가 “안에 거함”의 뜻은 덩굴 안에 있는 동안 포기하거나 아니면 참기를 실패할 가능성을 포함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생각한다.

예수님께서는 포기하는 자들을 교리에 휩쓸려 주체하지 못하면서도 덩굴에 연결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으로 말씀하셨다. 그들은 자기들이 덩굴 안에 거한 다고 믿는다; 그들은 그것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재림 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취급하다니! 나는 이 사업에 대해 신실했다. 그런데 속임을 당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으나, 속임수를 당했다. 나는 진실로 내가 덩굴 안에 거하는 줄 알았다.” 만약 이 “안에 있으나, 진실로 거하지 않는” 일이 현실 적이지 아니었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주님, 어째서 나를 이렇게 취급하십니까? 나는 이런 천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그 모든 일들을 당신 명예를 위해 했으니 난 이것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에 거한다 함은 감정(느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좋게 느끼거나, 나쁘게 느끼거나, 혹은 무관심을 느끼는 것도 아니다.

안에 거함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가지치기 연구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약 나의 삶이 그 말씀과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나는 나 자신을 속이고 있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상관없이 지나치게 느낌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심리적으로 우리 자신을 속이게 된다; 한 경우로 가지치기는 불필요하다고 느낀다, 두 번째 경우로 가지치기에서 오는 결과와 아픔을 느끼고, 다듬어지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로 남는다. 이 가지는 결국 잘라내어진다. 그러나 역시 주목해야 할 것은, 가지를 자르는 일은 그것을 태우기 바로 전까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면, 나의 이름은 그분의 중보가 끝났을 때라야만 지워질 수 있단 말이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잘라 없애버리는 때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그분의 명단에서 내일 지워버리실 수 있다면, 굳이 오늘 적어 놓으실까? 이것이 바로 “죽정 이”와 같은 의미 아니겠는가? 성경은 기록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마태복음 13:30). 이게 언제인가? 내가 지금 잘라내어 버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직 자리에 놔두라고 하셨다.

구원의 확신은 그것을 느끼는 것에서 비롯되지 않으며, 내 이름이 교회 명단에 적혀있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 있어 어떻게 작용했느냐, 어느 정도까지 내가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도록 허락했느냐가 진정으로 문제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덩굴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다듬어지기를 거부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 할 것이며, 설령 조금의 열매를 맺는다 하여도 -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열매 같아 보일지라도 - 그것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열매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전달 함

그러면, 도대체 열매는 무엇인가? 열매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사람의 육체에 전달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성화(sanctification 聖化)의 과정이다. 칭의(justification 稱義)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속죄(atone) 하시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갈보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 선물을 받음으로써, 나는 무죄가 된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러나 칭의가 내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 필요한 표제라면, 하늘나라 생활에 조화되도록 하는 것은 온전히 가지치기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가지치기(다듬는 것)는 성화에 관한 것이지, 칭의에 관한 것이 아니다. 언제든지 칭의가 우선이다. 성화도 또한 칭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되는데, 그 과정은 평생 동안 계속된다. 다듬어지는 과정은 언제까지 계속된다고 했나? 끝없이 계속된다. 가지치기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를 예수님의 품성 안으로 더욱더 깊이 데려가 그분의 품성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위해서이다. 그

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한 가지를 보셨을 때, 여기 조금 다듬으시고 저기 조금 다듬으신다.

우리는 성경 지식이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성경 지식은 그저 사람을 예수님, 사람을 성장하게 만드는 진정한 요소, 껍데로 이끄는 일 만 할 뿐이다 - 그것이 성경 지식의 목적이다. 예언, 가르침, 교리, 다른 어떤 것을 배운다 해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 지 않으면 그것은 쓸모없는 것들이다. 성화는 칭의를 계속 적으로 유지한다.

가지는 열매 맺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나? 그러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것에 근심 하도록 유혹한다. 그리고 열매 맺는 것에 집착하면 할수록, 더 적은 수확을 거둔다. 당신과 나의 가지로서의 할 의무는 그저 덩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 가지가 덩굴 안에 거하 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는 가지에 맺힐 것이다. 그것이 진 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가지치는(다듬어지는) 것을 받아들임

그러나 가지치기는 그 가지가 농부에게 허락하는 한도 에서만 진행된다. 만약 가지가 다듬어지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을 고치고 말씀과 그 삶이 일치되기 위해 말 씀을 통해 오는 가지치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외에 당 신을 위해 해줄 것이 없다는 말이다. 당신은 속임을 당할 것 이고, 그것은 당신의 일평생 계속될 것이다.

덩굴에 연결됐다고 해서 가지에게 억지로 열매를 맺게 하지 않는다.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이유는 그 가지가 진(수액)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기를 허락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 기 위해 자기 자신을 가지치기 당하도록 순복하기 - '자기 자신을 허락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 때문이다. 불행하 게도 우리는 가끔씩 스스로 유혹을 만들어놓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상황과 문제를 만들어 주님을 앞질러 간 다. 그러나 우리가 그 덩굴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그런 문 제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거 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 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 자신으로 하여금 다듬어지기를 허 락할 때 그 작업이 이행되는 것이기에, 나는 그 무엇이 다듬 어져야 하는지 결정하지 않는다. 그 가지치기의 과정은 성

경 말씀이 나의 삶에서 해로운 습관들을 잘라내는 것이며, 세속으로부터 나를 잘라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지 치기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모든 시련과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통하여 판단하는 일이 된다. 나 자신의 명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기쁨이 된다. 어째서 그런가? 이유는 그 가지치기의 경험을 통해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당신이 기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가지치기가 실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기쁨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그렇게도 어려워하는지 그 이유로 이전에 인용되었던 구절을 기억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고, 어째서 그리스도인들은 변덕스러우며, 한결같지 않은 이유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서부터 떨어져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에게 붙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¹³

떨어져 나오는 그 과정이 바로 성과를 결정한다. 만약 내가 옛 것에서 먼저 분리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지치기 혹은 다듬어지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가지치기를 통해 내가 세상에서 분리되면, 열매 맺는 것이 기쁘고 행복이 된다.

기꺼이 받아들이기

그런데 내가 그러한 가지치기의 과정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예전 어떤 한 여인에게 육식은 우리에게 좋지 않음을 일깨우시려고 했을 때 그녀가 거친 과정을 따라야 할지도 모른다. 처음에 그녀는 그 권면을 무시하고 계속 육식을 했다. 이것은 오랫동안 계속됐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권면을 세 번 네 번 반복하셨다. 결국에 그녀는 육식이 우리의 식생활에 좋지 않음을 확신했고, 그것을 그녀의 식단에서 없애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육식은 금하리라 굳게 결심하고, 요리사에게 야채와 과일만으로 식사를 준비하라고 말했다. 그 후 처음으로 식탁으로 와 오직 야채와 과일만을 본 그녀는 너무나 역겨웠고,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 너무

역겨운 나머지 한 입도 먹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는 식탁을 떠났고 다른 일에 몰두했다. 그 다음번 식사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녀는 역시 야채와 과일만 보기가 싫었고 그녀의 배도 항의했다. “네가 - 자신의 배에게 말했다 -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다,”라고 말하고 또다시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삼 일 동안 계속됐다. 그녀는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이제 차려놓은 식사를 기꺼이 감사드리며 먹을 수 있었다. 보았다시피 갈등과 얼마 동안 음식을 금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의 가지치기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녀는 다듬어지는 과정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기쁘고 즐거이 받아들였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효과적이었으며,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끈질기게 없어지지 않는 습관을 제거하기 위해 이것을 본보기로 따를 수 있다.

나의 역할하기

그러나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이 과정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이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떤 악함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의 죄 됨을 인식하게 된다, 이제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도록 그분께 맡기는 대신, 우리는 그 문제를 우리 손아귀에 다시 놓고, 다시금 그 시험에 빠져버린다. 앞의 예에서 그녀가 어떻게 반응했었나? “네가 기꺼이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했다. 하나님께서 어떤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에 대해 기쁘게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죄를 떠날 때, 우리 역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W.W. Prescott의 책 *Victory in Christ*¹⁴ 에서 유익한 인용을 찾을 수 있다:

“나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주 오랫동안 노력해왔으나, 계속 실패했다. 그 후 나는 실패의 이유를 발견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 시는 역할은 하지 않고 - 그것은 바로 덩굴 안에 거하는 것이며, ‘덩굴’의 예화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이미지(형상)와 언어를 사용해왔다 - 나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부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할을 내가 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으시며, 또 나는 그것을 할 수도 없다. 요점은, 나의 역할은 승리를 맛보고 열매를 맺는 것인데, 승리를 거두려면 성령님을 받아들여 그분이 열매를 맺으시게 “허락”하는 것이다. 이 승리는 예수님께서 아담의 자리를 대신하여 아담이 이루지 못한 품성을 매일의 삶을 통해 완벽하게 하심으로 이미 그분께서 나를 위해 확보해 놓으셨다. 예수님이 승리를 거두셨다; 그분께서 사탄과 죄의 싸움에서 이기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께서 거두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나, 그것을 우리에게 받게 하시는 데 많은 고생을 하신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역할, 그것은 바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하려 하지 않고, 그분께서 가지치기를 하시어 우리 안에서 그분의 품성을 계발하시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론상으론 그다지 어렵지 않으나, 사실상 어려운 과정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그 덩굴 안에 접붙이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성장하기 시작할 때, 예전의 삶과 아주 흡사한 작은 싹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분은 싹들을 잘라야 한다고 판단하시고 그 작업에 들어가신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잘라내는 것의 고통을 깨닫고, 그것에 항의한다. 우리의 그 태도에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서시며 말씀하신다, “네가 나의 가지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계속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이며, 그분의 생애가 우리 안에서 재현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롭지 못한 옛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의 허락을 통해서 뿐이다!

노력과 열매 맺기

“‘그렇지만,’ 당신은 물을 것이다, ‘성경은 군사와, 전쟁과, 싸움을 말하고 있지 않소?’ 맞다, 그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그 경지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면 받지 않았소?’ 지당한 말이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소?’ 우리가 무엇을 위해 투쟁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아는 그 오직 한 가지만이 주제이다.”¹⁵ - 그것은 다름 아닌 덩굴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열매 그 자체, 하나님의 품성을 받는 것,에 여념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품성을 온전

히 반영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러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간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이며, 그것은 그분께서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마음 전체에, 성화의 과정을 통해 완벽한 열매를 전해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그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전이(轉移) 하고자 하신다. 칭의(justification, 稱義)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성화(sanctification, 聖化) 역시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다; 둘 다 시작부터 끝까지 선물이다.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점은 방해 요소들이 우리가 그 선물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누구에게 어떤 것을 주려고 했는데, 어떤 방해 요소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가? 하나님도 그것을 경험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던지 상관없이 당신이 단순히,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칭의(justification, 稱義)의 과정을 통하여 그분의 품성을 전이(轉移) 하실 수 있다. 그분은 “괜찮다,”라고 대답하시고, 그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그분께서는 말 그대로 그 품성을 우리에게 전이(轉移) 하는 것을 시작하시고, 이 경험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평생에 걸쳐 진행된다. 그 어느 때라도 가지치기/전이(轉移)의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 항의하고, 내가 운전자석에 앉아 운전하려는 소망이 생기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신다. 그리고 나는 머지않아 도랑에 빠진 나를 발견한다. “아! 주님, 제가 또 실패했습니다. 다시 운전대를 잡아 주십시오,”라고 나는 말하고, 그분은 다시 주관하시어 운전하신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나는 다시 말한다, “이제 내가 다시 주관해도 되겠습니까 -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군요 - 나는 다시 운전대를 잡고 또다시 곧 도랑에 빠지고 만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간절한 바람 때문에 그분이 계속해서 겪으시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우리가 방해 요소들을 제거할 때에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시련과 시험을 보내시지는 않으나, 그것들을 허락하신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시련이나 시험이 아닌, 그 문제의 해결책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의하시는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족하는 부분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가지치기의 과정이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때 이용하는 어느 문제점이라도 다 사용하신다 - 어떤 시련이라도, 어떤 유혹이라도, 어떤 고뇌라도 - 그래서 우리에게 해

결책을 보게 하신다. 그 해결책은 어느 각도에서 보나 항상 예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대답을 원한다. 내가 사람들과 공부할 때의 경험에 의하면, 그들은 말하길, “다른 대답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방법은 예수님 뿐입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라도 좋으니, 다른 것 없습니까?” “아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답입니다.” 사람이 간구해 낸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쉽다. 내가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그 방법을 먼저 택할 것이다 -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다른 종교가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이다.

Notes:

¹³ Ellen G. White, cite in *Messages to Young People*, p. 118.

¹⁴ W.W. Prescott, *Victory In Christ* (Washington, D.C.: Review &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p. 17.

¹⁵ Ibid.

토의 문제:

1. 제자들이 자기들이 “참 덩굴”이 아니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느꼈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나? 당신은 예수님보다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더 많은 신뢰를 두고있지는 않나?
2. 성경은 어떤 방법으로 가지치기를 하는가?
3.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은 무엇인가?
4. 하나님을 운전자 석에 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 주권을 우리가 다시 돌려받기는 얼마나 쉬운가?

54 포도덩굴과 가지

5. 가지의 필수적인 임무는 무엇인가?
6. 예수님 안에 있기는 하나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7. 열매란 무엇인가?
8. 가지치기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9. 옛 것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왜 필수적인가?
10.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것이 어째서 힘든 일인가?
11. 당신의 삶 속에서 그분이 이루시려는 목적을 방해하는 방해요소들은 무엇인가?

4 장

“나처럼” 거하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1-8).

나는 우리가 이 구절들을 반복하여 읽은 것이 당신에게 무료하다는 생각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간절하게 우리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또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마지막 대화의 첫 번째 부분이며, 성경 요한복음 15, 16, 그리고 17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분께서는 이 말씀을 다락방(upper room)을 떠나 밤길을 걸으시며 하셨다. 이 대화, 게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기 전에 하신 그 대화는 아무리 길어도 두 시간 이상 걸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기별 중 몇 개를 가르치셨다. 당

신도 이 분처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은 정보를 줬어야 했을 때가 있는가? 예수님이 그러셨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가능한 많은 양의 정보를 그들에게 주시려고 노력했다.

그분께서는 덩굴과 농부의 예화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분은 말씀하시길,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5:1).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내용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은 언제나 덩굴을 자기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말씀하시길, “너희는 옳지 않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2).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분명히 몇 가지 있었다. 첫 번째로,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곧 필수적인 가지치기를 겪어야 할 것이지만, 그들은 무엇이 가지치기 당할지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

제자들에게 있을 가지치기를 하는 도구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제자들의 그 당시 영적 경험의 정점에서 그들은 말씀 - 자기 자신들의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 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말씀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였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 - 말씀 -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 내용을 믿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실행되기를 허락하지 않는 이상 아무런 쓸모가 없다.

제자들은 이미 그 내용을 여러 번 들었고 또 대답했었다, “흥미 있군요! 좋은 내용이군요!” 그러나 그들은 그토록 훌륭한 기별을 들었어도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자기들이 읽는 구절에서 무언가를 얻을 것을 믿는다. 그들은 조금 이득을 얻었으나, 그 뜻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상태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그 결과, 제자들은 머지않아 성령님의 은사를 받게 될 것이었다. 그 성령님의 은사가 이루어려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였다: 그들의 깨우침을 위해 말씀 가운데 살게 하

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해한 후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요한복음 15:3),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서 그들이 정결해졌다는 것을 뜻하셨다. 정결하게 되는 오직 한 가지 길은 말씀을 통해서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결함이란 심령적인 정결함을 뜻한다. 인간이 정결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침례가 사람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다. 침례는 단지 외적인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내 안에 거하리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4,5).

잘못된 상호적 도움

얼마 되지 않은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아주 심오한 진리를 발견한다: 그 어떤 가지도 다른 가지를 지지할 수 없다! 이것이 당신의 관심을 끌지 않는가? 각자의 가지는 자신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열매 생산은 열매가 어디서 오게 되는지 그 원천을 다른 가지에게 알려 주며, 다른 가지에게도 열매 맺고 싶어 하는 욕구를 생기게 한다. 일단 열매가 인식되고, 그것이 오는 원천(덩굴)이 알려지면, 다른 가지가 그 원천에 접 붙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 그 원천은 당연히 다른 가지가 아닌 덩굴이다. 그 어떤 가지라도 다른 가지를 지지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서는 6절에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구절에 대해 이미 연구한 바 있기에,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

정말 우리는 아무거나 달라고 구할 수 있는가?

7 절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중점적으로 연구할 단어를 찾는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라”(요한 복음 15:7). 이 구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라,”은 종종 인용되는데,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요구해도 다 주어진다든 약속으로 본 뜻에 어긋나게 오용되고 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 구절을 조사해보면, 어떤 제한하는 조건이 그 약속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 제한 조건이란 무엇일까? 열매 생산? 안에 거하는지 안하는지의 여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지, 아니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지? 이것들은 다 좋은 답변이나, *정확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 약속을 들어달라고 자주 요구하긴 하나, 그 약속의 진정한 뜻의 연구에는 소홀하기 때문이다.

이 구절의 배경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 열매 맺음이란 오직 한 가지의 목표를 갖고 있는 덩굴과 가지의 예화를 말한다. 또한 다시 기억하면 도움이 될 사실은 가지는 단순히 덩굴이 열매 맺는 것의 매개체 역할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가지가 덩굴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 그것은 오직 하나라고 주장해도 타당하겠는가? 즉,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왜냐하면 오직 열매 맺는 것 하나가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이니, 그가 무언가를 바란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겠는가? 가지는 집을 지어 달라고 하지 않겠고, 여행을 보내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열매 맺는 것 외에 그 어느 것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가지는 이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다. 그것은 오로지 말할 것이다, “주님,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 그것이 가지의 단 한가지 요청이다.

당신은 이것이 지극히 논리적인 것에 동의하나? 당신은 또한 이 이치를 우리의 욕심에 따라 하고 싶은 모든 것에 적용하는 것이 대단히 어리석다는 것에도 동의하나?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억지로 과장되게 해석하여 모든 이기적인 욕구를 포함시키게 만든다. 많은 목사들은 이 구절을 인용하여 당신이 신실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청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가르쳐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종류의 사업에 관심 없으시다. 가지도 역시 그런 종류의 일엔 관심이 없다. 가지는 오직 더 많은 열매를 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농부는 그 요청을 이룰 수 있는 단 한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작업을 시작한다. 가지치가 바로 그 방법이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열매를 구하고 있나?

우리가 바라는 종류의 열매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안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단 한 가지의 목적으로 창조됐다. 예수님의 형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차고에 주차된 캐딜락이 그분의 형상을 반영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이 구질이 하나님께 물질적인 축복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셨듯, 우리를 가지로 써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그분의 형상을 완전히 반영하는 것. 캐딜락을 갖고 있는 것이 나를 가지가 되는 것으로부터 막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가지로 만들거나 열매를 맺게 하지도 않는다. 품성은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그것을 받을 마음이 열려져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닮도록 창조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형상을 따르고 닮는 것은 가능하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다듬어짐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말씀을 읽고 나서 그 정독한 내용을 잊어버리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절대 아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지를 치고 다듬을 때 견디어낸다! 성경은 말씀이 양 날의 칼보다 더 날카로우며 완전히 분리한다고 묘사한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하는 것이다 - 자르고 갈라놓는 것. 그것은 우리를 세상과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하고, 그 세상에서 추구하는 우리의 관심사를 바꾸어놓는다. 말씀은 또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우선하는 바램을 준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가능한 것이다.

열매 맺기, 하나님을 영광되게 함, 그리고 제자 되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요한복음 15:7,8, 처음 부분).

8절에서 열매 맺는 내용으로 바로 가는 것을 눈여겨보아야겠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 맺힘을 통한 아버지의 영광 받으심과 우리가 그분께 간구하는 것이 연결된 것을 주목하라: “...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것이고, 그분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다.

요번에는 마지막 구절을 연구하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당신은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한 것을 알았는가? 그 누가 제자 되는 것과 열매 맺는 것이 연관되었다고 생각했었는가?

다른 가지에 접 붙혀진 가지

한가지 간단히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계속되는 논쟁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를 기억할 것이다.

“내 형제들이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고린도전서 1:11-13).

당신은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알았는가? 당신은 고린도 사람들이 인간의 가장 위험한 약점에 넘어가고 있는 것을 알았는가? 가지가 자기 자신을 덩굴에 연결하는 대신 다른 가지에 접붙이고 있었다. 우리는 이미 가지가 다른 가지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배웠다 - 그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 그러나 고린도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나는 바울의 제자이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의 제자이다”라고 하고, 또 다른 종류의 제자들도 있었다.

요즘도 거기에 다른 이름들을 사용하나,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한 사람은 말하길, “나는 루터의 제자다.” 다른

사람은 “나는 웨슬리의 제자다”라고 말한다. 오랜 역사 동안 사람들은 이 과에 속하고, 저 과에 속해왔으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들은 설교를 생각해보라. 그 목사가 어디서 교육받았는지 알아내는 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긴 하나, 우리는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우리를 발견한다. “나는 아무개 아무개의 제자이다.” 바울은 사람의 이런 성향을 인지하고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네가 바울의 제자라고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 이유이다.

가지는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덩굴을 반영하는 열매를 맺는 것! 가지가 덩굴에 연결돼있으면, 그 가지는 다른 가지로 하여금 자기 대신 그 덩굴에 접 붙여지기를 원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의 행실이 남, 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매력을 느끼게 하지 못하면, 그것은 쓸모없다 - 사실 그것은 쓸모없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된다.

무엇이 제자를 만드나?

슬프게도, 그 무엇보다 기독교 전파에 있어 속도를 줄이는 요소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 가지들이 다른 가지에 접붙여 들어가게 된 것이다. 역사상 많은 경탄을 받을 만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있어왔고, 그중 수많은 사람이 놀랄만한 자기 자신을 위한 왕국을 건설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떠났어도, 그 왕국은 계속 존재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 의견들이 있었다. 없애 버릴까? 절대 그렇게는 못한다! 추종자들은 그 창시자의 가르침과 해석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결과는 실패일 뿐이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개인적 해석은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모든 목회자들은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 목회자들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말씀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력을 느끼게 해야 한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새 삶의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다” (요한복음 15:8). 무엇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제

자 됨을 증거하는 단 하나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품성을 반영하는 삶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반영할 때 무엇을 하게 되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였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요한복음 15:9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보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너희들을 사랑했으니.”

당신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생각해본 적 있는가? 이 장면과 연관되는 사실을 나열하겠다. 그분은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서 계셨다. 그분께서는 몇 시간 후면 돌아가실 것이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전개될 사건에 대해 완전히 오해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말씀하시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요한복음 15:9).

당신은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당신이 하는 말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오해할 뿐 아니라, 전혀 그 내용에 대해 감을 잡지 못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나? 만약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겪으신 어려움을 이해할 것이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몇 시간 후에 제자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목격할 것이었다. 그 상황에서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었겠는가(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목격하는 제자들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틀림없이 생각했을 것이다)? 또 무엇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잘못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었겠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분의 죽으심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 무엇이 이 오해들을 막을 수 있었겠는가? 바로 그분의 말씀이다! 그들의 희망은 오직 그분의 말씀에 있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나? 곧 일어날 사건에 대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 오신 말씀이다.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말씀하신 이유이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요한복음 16:4).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있나?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대단히 혼동될 뿐 아니라,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주제를 불러일으키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지체하지 않고 계속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9,10).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버지가 보내셨기에 이 지구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길 기꺼이 자원하셨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19).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9,10). 그리고 난 후 곧 예수님께서 그 계명들을 말씀하셨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5:11,12).

이 계명은 내가 그리스도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보여준다.

“내가 그랬듯이!”

요한복음 15:10절로 다시 돌아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연구하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곳에서 우리는 덩굴과 가지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주요 단어들
 들을 찾을 수 있다. 그것들은 무엇인가? “내가 그랬듯이!” “
 내가 그랬듯이 그렇게 행하라!” 이 두 표현은 그리스도인으
 로의 경험에 관계되는 모든 질문을 대답한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견디단 말입니까?” “내가 그랬듯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신다, “내가 그랬듯이!”
 히브리서 4:15에 기록되길,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
 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
 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
 므로 그분은 모든 질문에 “내가 그랬듯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다.

당신은 덩굴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덩굴에 거하셨던
 것과 똑같은 경험이란 것을 이해하는가?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도 그분의 아버지 안에 거하셨다 - 신뢰
 하셨다. 그분은 그것이 계세마네 동산이건 갈보리이건 상관
 없이 신뢰하셨다. 그분께서 죽음이 가져오는 미지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진실로 그 죽음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알지 못하면서도, 계속 신뢰하셨다. 그 정도의 신뢰는 인간
 적으로 말하면 도저히 불가능했다 - 계세마네의 경험은 너
 무나 잔인하여 그분의 이마에 피를 맺히게 할 정도였으며,
 하나님의 명을 받은 하늘 천사가 오지 않아 그분을 보강하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쓰러져 그 자리서 돌아가셨을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내하실 수 있었나? 그것은
 바로 그분이 덩굴 안에 거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것이 밝히는 것은 무엇인가? 품성,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품
 성이다. 환경이 그분의 품성을 바꿀 수도 있었나? 그렇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어떤
 상황이 그분의 품성을 바꿀 수도 있었나? 그렇다, 바꿀 수
 도 있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그분의 품성을 바꾸지 않았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안에 거하라 ... “내
 가 그랬듯이.” 사랑하라 “내가 그랬듯이.” 이것은 귀하고 귀
 한 가르침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여기
 유용한 한 이야기가 있다, “ 혹은 “여기 한 예화가 있다.” 아
 니다, 그분은 일부러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그 덩굴
 이고, 너희가 가지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여 온전히 그
 분께 의존했듯이, 너희도 똑같이 해야 한다.” “내가 그랬듯
 이.”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오셔서 가지로 살으셨을 때, 그
 분께서는 계속해서 아버지 안에 거하셨다. 오늘날 예수님께

서 그 덩굴이고 우리는 가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았듯이 그분께로부터 받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나? 그분은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았다.

우리의 불만감을 갖고 그분께 가기만 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생각해보라! 그것은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하나? 우리는 친구에게 가서 얘기한다, “도대체 내가 이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했던 것처럼 해라!” - 그것이 그분의 답이며, 그 답은 항상 간단하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다음을 말씀하셨을 때도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었음을 발견한다, “너희들은 내가 한 말을 통하여 정결케된다.”

덩굴의 사랑스러운 우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13,14).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이를 위해 한 목숨을 바치는 것에 대해 조심스레 말씀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제 몇 시간 후면 그분 자신의 삶을 바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확고히 믿고 있었다는 점이다 - 적어도 그 당시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그 가능성을 염두해 둘 수 없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을 바치리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정녕 돌아가셨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단순한 육체적 희생을 초월하여, 그 희생에서 증명되는 엄청난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다. 또한 눈여겨 둘 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들”이라고 부르신 것이 이곳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Andrew Murray는 그의 책 *The True Vine*에서 바로 이 증거 된 사랑에 대해 말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진실로 그리스도는 그분의 실체(존재)에 대한 근원적 신비와 그 힘의 원천을 우리에게 알리기 원하셨다. 덩굴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지식적으로 생각하고 알아야 할 어떤 것이 있다고 느낄 뿐 아니라, 살아있는 힘, 신성한 삶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¹⁶

이 사랑, 이러한 종류의 사랑 - 이러한 종류의 신성한 사랑-은 신비한 힘이요 영향이다. 그것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흘러넘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 사랑의 상당히 미묘한 성향 때문에 우리는 쉽게 혼동된다. 또 오늘날의 사회가 우리의 사고방식에 천한 종류의 거짓된 사랑으로 퍼부어 혼동시키는 것은 사랑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구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째서 우리는 그렇게 혼동하나?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의 힘이 감정 - 그것도 강한 감정- 과 관계되고 그 감정을 통해 사랑이 밝혀진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이기적인 설득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을 바치는 것에서 증명된다. 그것은 받는 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주는 면에서 나타난다. 참 사랑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목격하는 것의 반대일 뿐 아니라, 요한복음 15:13에 묘사된 참 사랑의 완벽한 전형은 바로 나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것이다. 완전히 주는 것은 완전한 사랑이다. 사랑의 뜻에는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거나, 자신을 위해 받는다는 것이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다. 또한 그것은 언제나 자신을 주는 것이기에, 내 안에 무엇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반대이다.

Andrew Murray를 다시 인용하면: “우리가 이것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지식적으로 생각하고 알아야 할 어떤 것이 있다고 느낄 뿐 아니라, 살아있는 힘, 신성한 삶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¹⁷

가지가 베푸는 사랑의 한도

이러한 종류의 사랑을 특징으로 하는 베품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가능하다. 그러나 당연히 자아가 더 두각 되기 위해 처음부터 갈등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이상, 인생의 첫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자아는 계속해서 그 자신을 나타낼 뿐 아니라, 그 정도는 점점 커지며 자기 우월성은 갈수록 커진다. 자

기중심적 사상은 삶의 새 원천을 만나기 전에는 바꾸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옛 본성이 완전히 죽고, 우리 스스로 도저히 만들기 불가능한 신성한 새 본성이 대신 거해야 하는 이유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은 분리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의 존재이다.¹⁸ 당신이 그중 하나를 가지면; 다른 하나도 갖게 되고; 그중 하나가 모자라면; 다른 것도 갖지 않은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은 분리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의 존재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사랑이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신성한 사랑은 그것을 우리가 소유할 때만 알려진다.”¹⁹ 사랑이란 그것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믿으면서도,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가능하다. 당신은 사랑에 대한 모든 시를 쓰고, 사랑과 삶에서 비롯되는 모든 감정에 대한 느낌을 표현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신성한 사랑은 그들을 우리가 소유해서, 그 사랑과 힘이 우리 안에서 작용할 때에 비로소 알려진다.”²⁰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3).

가장 숭고한 사랑

Andrew Murray의 생각을 같이 연구해보자. “희생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사랑의 표현이다. 한 사람이 그의 삶을 바칠 때, 그는 아무것에도 미련 두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는 것이다. 이점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덩굴에 대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시려는 것이다.”²¹

끊임없이 주는 개념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을 덩굴로 묘사하는 이유이다. 왜 그런가? 덩굴은 삶을 지탱하는 진(수액, sap)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덩굴은 끊임없이 공급함으로써 그 수액의 지속적인 흐름을 유지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심을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본성이 베푸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하나님 이시며 베풀지 않을 수 없다. 그것과 똑같이, 가지가 살아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왜? 그 이유는 가지의 본성은 열매 맺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지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가지

가 열매를 맺느냐 앓느냐의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다; 가지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어떻게 열매를 맺나? 덩굴이 제공하는 것을 받음으로 맺는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염두에 둘 것이 있다. 만약 가지가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이 사실인데, 어떤 시점에서 가지가 수액을 덩굴에서 받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맺히는 열매는 다른 생명의 원천에서 오는 것이 된다. 그것이 가지의 실제적 - 가장 큰 - 문제점이다. 가지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는 수액을 참 덩굴에서 받아 예수님의 품성을 자기의 삶에서 반영하기로 선택하거나, 혹은 거짓되고 허위 된 모조품에서 받아 거짓되고 허위의 열매 맺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덩굴과의 우정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만약 우리가 그분의 어떤 명령이라도 시행하면 그분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다. 이 “친구”라는 단어는 완전히 잘못 이해되고 있다. 우리는 보통 많은 친구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한평생 사는 동안 안면이 있는 사람은 많이 두나, 친구는 얼마 되지 않다고 어떤 사람이 말했다. 나는 그것을 사실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안면이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친구의 정의는 우리에게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누군가 말했다. 이 정의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어렵도 없다! 진정한 친구의 정의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사실상 적용된다. 요한복음 15:15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있을 수 없다;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다. 바로 그것이 왜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소수뿐인 이유이다. 우리는 친구가 있긴 하나 그것은 표면적인 관계일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의 심적인

문제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우리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만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열어놓는다.

그런데 요한복음 15:15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친구를 대하듯 말씀하고 계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제자들은 머지않아 그들이 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비극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경험은 미리 충고해 두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였기에, 예수님은 솔직하게 곧 일어날 사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셨다.

두 주인을 섬기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와 주님과 의 관계를 설명할 때 “하인”이라는 단어가 쓰는 것을 인식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좀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마태복음 6:24에는,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나온다. 그것을 약간 변형하면,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의 하인이 될 수 없다”이다. 성경의 시대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하인은 노예였다는 것도 주목하라. 그러면 다음의 문장이 나온다,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의 노예가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을 믿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분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신다. 왜? 그 이유는 사람의 행함은 믿음에서 비롯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로마서 14:23에 기록하길, “무엇이든 믿음에서 말미암지 않으면 죄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뜻인데, 그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의 앞날에 대해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해주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우리의 믿음이 시험당하게 허락하신다.

이제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크게 시험당할 경험을 곧 하게 되었다. 나는 그들이 당할 시험의 정도를 우리는 한치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예수님과 삼 년 반 동안 같이 지냈다. 바로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완전한 실패를 맞볼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모두 도망가고 예수님만 홀로 남으셨기에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안다. 사실인즉, 만약 주님의 부활 이후 그분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시고, 그

분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시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의문점을 해결해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제자들은 문이 잠겨진 다락방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하여 숨어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결국 그들은 불신자로 남아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제자들이 불신과 공포에 떠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다.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믿고 이해했다라면 예수님께서서는 기쁘고 만족하셨을 것이다. 그분이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시지 않았던가? 그분은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 미리 예언하시지 않았던가? 그러나 제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자기들 맘대로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확한 미래에 대한 진술을 이해하지 못 했다.

모든 것을 아는 것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정에 대해 언급하셨을 때, 그분은 영적 경험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이것은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온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5:15).

예수님의 말씀,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일깨우시려고 했는지 생각해본 적 있는가? 지구 상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대변인이신 그분은 말씀하신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것을 생각할 때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충실했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충실하길 원하신다. 충실함에서 바로 제자 됨이 나타난다. 요한복음 15:8을 기억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결과적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뜻은, 나의 아버지가 이러한 것을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그것을 너희와 공유한다.

덩굴에게 응답하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무시할 건가? 듣기는 하나 아무런 변화 없이 살 것인가? 듣고 나

서 졸린 듯 성의 없이 반응하나? 그 대답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를 심사숙고할 때 나온다.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는 무엇인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열매 맺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다. 그러면 그분께서 그와 똑같은 것을 우리 안에서 하실까? 그렇다! 그분은 그분의 품성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을 것이다 - 그것이 열매 맺음의 목적이요 그분이 말씀하신 우리의 목표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음을 말씀하실 때, 우리의 첫 반응은 이웃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려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다, “이보시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니,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일반적으로 이렇다, “정말인가? 당신은 그것을 믿는가? 그런데 당신은 전혀 그것을 믿는 것 같아 보이질 않는군! 당신과 나 사이에 별다른 점이 없는 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말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에 동의하겠는가?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감지해야* 한다.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정녕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가능하다고보다는 단순히 우리에게 바라는 건가? 만약 우리의 열매 맺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결과로 오는 것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바램만이 아니다. 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의 결과로 하나님의 품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반영되었듯이 우리 안에서도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빌립의 “하나님을 보여달라”라는 요청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기억하는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8,9).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분께서 다 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도에 지나치는 것일까, “네가 만약 스미스씨나, 존스 형제를 봤다면, 너는 이미 나를 본 것이다”?

Notes:

¹⁶ Ibid., p. 143.

¹⁷ Ibid.

¹⁸ Ibid.

¹⁹ Ibid.

²⁰ Ibid.

²¹ Ibid., p. 144.

토의 사항:

1. 가지가 덩굴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2. 가지는 어떤 종류의 열매를 발전시키나?
3. 어떤 두 단어의 말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생기는 모든 질문에 답하는가?
4.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바칠 때, 그는 얼마만큼을 주는가? 덩굴의 일화에서 봤을 때, 희생에 대해 무엇을 배우나?
5.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가끔씩 어떤 실수를 저지르나?
6. 열매 맺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5 장

안에 거함과 그리스도의 품 성 반영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9-13).

우리는 그동안 오랜 시간을 들어 요한복음 15장을 공부해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 동안 계속할 것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들어가 인류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바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권면의 핵심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덩굴과 가지 그리고 안에 거함의 필요성에 대해 공부해왔다.

요한복음 15:7-8을 읽음으로 시작하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7,8).

기억해 둘 것은 제자란 단순히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을 반영하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분류하신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5:9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구절은 감정에 휩쓸려 쓸모없는 느낌으로 변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육체적 사랑에 대한 세속적 느낌이 참 사랑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방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사랑에 대한 개념은 이론적일 뿐 실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과 성경이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둘을 쉽게 구분하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둘을 구분하는데 도움을 준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듯이.” 여기서 무엇이라고 하셨나? 그분의 말씀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까? 인간의 언어를 통해 그분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둘째치고, 그 심오함을 나타내기는 참으로 어렵다.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함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다루지는 않았으나 우리의 주목을 요구하는 어떤 한 사상이 있다. 하늘에서 죄가 그 모습을 들어낸 때로 나와 같이 돌아가 보자. 사악함은 어떻게 시작됐으며 발전됐나? 그것은 사탄의 마음에서 시작됐고, 하나님을, 특히 그분의 품성을, 적대시하며 그 모습을 드러냈다. 어째서 그랬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에 대한 사랑으로 설명되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품성과 사탄의 사악한 품성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아직 죄가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완전한 신성함과 순결함만이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설명하기란 매우 어려웠다. “나의 품성은 사랑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었으

나, 그것은 천사들도 똑같이 주장할 수 있는 말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사탄의 사악함을 비교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사탄은 이러한 상황을 기회 삼아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 강렬히 도전했고, 뒤따르는 쟁투는 천사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그 결과 하늘에서는 그 당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수많은 토의와 경악이 따랐다. 천사들은 누가 옳고 그른지 의심이 갔다. 사랑이란 것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증명되는가? 하나님이 옳은 건가? 사탄이 옳은 건가? 결과적으로 하늘에서 이 논쟁을 두고 싸움이 일어났으며, 계시록 12장에서 말하듯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쫓겨났다.

미리 계획함

모든 미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위에 묘사된 쟁투와 그것의 결과인 죄는 뜻밖의 일이 아니었다. 그분께서는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다 알고 계셨고, 이미 그 사태를 수습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 후 하나님은 루시퍼와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하나님께 죄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참으로 부족하다. 그러나 우리의 제한된 관점에서 봐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나타내셨고, 끝까지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의 품성만이 루시퍼 같은 피조물을 만드시고, 미래에 큰 분량의 천사들이 그분을 배반하리라는 사실을 무시한 채, 그에게 가능한 한 모든 영광을 부으실 수 있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사악함의 가능성을 가진 사탄을 창조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께서는 사랑으로 하늘의 천사들뿐 아니라, 이 지구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세계의 피조물들을 만드셨다. 사탄이 도전장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품성을 온전히 대표하는 사람을 허락하는 이미 설계된 계획을 이제 실천에 옮기신다. 당신이 만약 생사를 결정하는 재판에 연루되었는데, 당신의 품성을 나타내는 어떤 한 사람을 대표로 대신 법정에서 세워야 한다고 상상해 보라. 당신은 그 한 사람을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하겠는가? 하나님의 경우는 사실 이것보다 더 복잡한 문제였다. 그것은 이 대표인 사람은 세 명의 신격(Godhead)을 온 세계에 나타내

야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겠다.

대변인으로서의 역할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선택된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을 창조물들 - 천사와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 -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알아야만 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세계의 토대가 사랑이었고, 그 사랑의 토대 위에 모든 것이 결합되어야 하는 점도 예수님의 과제가 필수적인 이유였다. 말할 것 없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그 사랑은 하찮은 감정적 반응 정도가 아니었다. 그 기본적 원칙하에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심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직책을 수행할 분으로 예수님을 선택하셨다.

우리의 역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중책과 그분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9에서 말씀하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를 관계 지을 수 있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품성을 이 지구 상과 나머지 타락하지 않은 우주에 나타내도록 명하신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대표할 때, 그분의 품성이 나타내지고, 알려지며, 이해된다.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피조물들에게는 지식적인 이해를 주는 것에 반해, 우리 타락한 피조물들에게는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 증거는 타락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가능케한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데 - 이것이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의 대속(代贖)의 목표였으며,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예수님께서,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당연히 그분의 사랑을 말한 것이었으나, 그것은 또한 사랑의 계속 전파됨도 뜻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인간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

량이 작용하는 방법이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 된다.

사랑 안에 계속 거함과 실제적 증거

그리스도의 실물 교훈, 페이지 120에 있는 인용문을 잠깐 생각해 보겠다. 여태까지 공부해 온 사상들을 생각해볼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신실했던 교회는 오직 에베소서 교회였다는 것이다. 다른 모든 교회는 실패했고, 사실은 심지어 에베소서 교회에도 몇몇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에베소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업을 그분의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로 변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신자들이 이룬 업적은 놀랄만했다.

값비싼 진주 (Pearl of Great Price) 라는 장에서 우리는 다음을 읽는다:

“그리고 부활한 구세주의 기쁜 소식은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퍼졌다. 교회는 사방에서 줄을 서 들어오는 개종자들을 목격했다. 믿는 자도 다시 개종되었다. 죄인들은 값비싼 진주 (Pearl of great price) 를 갈구하는 취지하에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했다. 예언은 성취됐다. 약한 이가 ‘다윗’처럼 될 것이고, 다윗의 집안은 ‘주님의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스가랴 12:8. 형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비와 사랑을 목격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다. 이 한 목표는 다른 열정들을 사라지게 했다. 모든 사람이 한마음이 되었다. 믿는 자들의 오직 한 가지 욕망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는 것을 나타내고, 그분의 왕국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이었다. ‘사도들이 놓이매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사도행전 4:32,33.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47. 그리스도의 영이 집회의 대중을 활기로 채웠다. 그들은 Pearl of great price 를 발견한 것이다.”

“이 현상은 미래에 다시 일어날 것이며, 그 영향은 더욱 클 것이다. 오순절에 쏟아진 성령님의 힘이 이른 비였다. 그러나 늦은 비의 능력은 더욱더 클 것이다.”²¹

위의 인용문을 신중히 살펴보자. 지체 없이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그리고 부활한 구세주의 놀라운 소식은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퍼졌다. 교회는 사방에서 줄을 서 들어오는 개종자들을 목격했다.” 바울도 골로세서에 보내는 그의 편지에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졌다고 말했을 때 이 사실을 입증했다(골로세서 1:23). 나는 나의 어머니도 그러했고, 어머니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 살아생전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들은 것이 기억난다. 지금 우리 세대에도,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고 싶은 갈망이 있다. 우리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사업을 그분의 방식대로 하지 않는 이상 별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 방식대로 처리된다면, 그 일은 순식간에 끝날 것이다.

다시 읽겠다, “그리고 부활한 구세주의 놀라운 소식은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퍼졌다. 교회는 사방에서 줄을 서 들어오는 개종자들을 목격했다.” 전환점도 이런 전환점이 또 어디 있을까! 우리 교회의 문만 열어놓아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들어오는 것을 상상해 보라! 우리 현실은 이것과 아주 다르다. 지금 우리는 사람을 방문하고, 공부하자고 요청하며, 집회에 나오도록 초청한다, 그리고 광고를 해야 한다 -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나오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에베소서 교회에서 사용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성경에는 그 교회는 개종자들이 줄을 지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기록한다. 그뿐 아니라, 기록하길, “믿는 자들도 재 개종됐다.” 여기서 잃은 자, 낙오자, 믿는 자들이 모두 교회로 돌아오고 재 개종되고 있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업을 그분의 방법대로 하고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계셨다.

“믿는 자들도 재 개종됐다. 죄인들은 *Pearl of great price*를 갈구하는 취지하에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했다. 예언은 성취됐다. 약한 이가 ‘다윗’처럼 될 것이고, 다윗의 집안은 ‘주님의 천사’와 함께 될 것이다.” 스가랴 12:8. 모든 그리스도인은 형제 안

에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닮은 자비와 사랑을 목격했다.”²²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 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요한복음 15:9). 당신은 이런 종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본 적 있나?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런 종류의 사랑이 필요하고, 교인들 - 우리 각자 - 역시 개인적으로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의 교회가 에베소서 교회와 같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는지. 만약 신자들 하나하나가 - 만약 각자 모든 그리스도인이 - 그의 형제와 자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비로운 사랑을 목격한다면, 모든 비난의 흔적이 없어질 것이다.

자비로운 사랑

“자비로운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당신은 물으는지 모른다. 자비로운 사랑이란 거룩한 사랑이며, 그것은 베푸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세속적 사랑은 일반적으로 그와 정 반대이다. 그렇지 않나? 세속적 사랑은 이기적이다. 그것은 사랑을 받기 위해 주고, 일반적으로 이기적인 동기를 두고 있다. 대조적으로, 자비로운 사랑은 보답으로 무엇을 받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런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나? 모든 믿는 자는 그런 사랑을 에베소서 교회에서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곧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 “흠, 그 사람 뭘 바라고 있는 걸까?” 혹은, “그녀가 왜 그랬는지 그 속마음을 다 알고 있다!”

이런 의심들이 에베소서 교회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형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비와 사랑을 목격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다. 이 한 목표는 다른 열정들을 사라지게 했다” 그 관심이 무엇이었나?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으로, 그 목적은 그시대에 우세했고, 또다시 그러할 것이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의로우심을 밝히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다. 이 한 목표는 다른 열정들을 사라지게 했다. 모든 사람이 한마음이 되었다.” 이것이 아름답지 않은가? “모든 사람이 한마음이 되었다. 믿는 자들의 오직 한 가지 욕망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는 것을 나타내고” 당신은 그것을 감

지했나? 믿는 자들의 욕망은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오직 한 야망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거였다 - 그곳엔 경쟁이 있을 수 없다! 모든 믿는 자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형상을 완전히 나타내는 것! 그리고 저자는 말하길, 그리고, 그분의 왕국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이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사도행전 4:32, 33).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영함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 당신은 알아냈는가? 그것은 바로 은혜였다. 이 은혜가 무엇이었나?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실물 교훈*에 나오는 다음의 인용문을 사용해 그것을 증명하겠다. “그리스도에 대해 배운다 함은 그분의 은혜, 곧 그분의 품성, 을 받는 것이다.”²³ 이것과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참고 문구가 있으나, 이것이 가장 명확한 것이다. 그러면,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였다”를 읽을 때 무엇이 묘사되고 있나?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품성이 교회 신자들에게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교회에 대해 읽고 있다.

사람들이 에베소서의 교인들을 만났을 때, 그 교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신자들은 진정한 제자들이었으며, 그들은 그들의 선생님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들은 제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들이 누구의 품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했나? 그리스도! 그 결과 그들의 품성도 변화되어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상기시키는 품성으로 풀 지어졌다. 나는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들리는 것 같다, “맞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하는 말인가?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하나? 물론이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교회로 때를 지어 들어올 것이다 - 당신은 그들을 말할 수 없을 것이며, 그 일은 진실로 일어날 것이다! 계속해서 읽으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라’(사도행전 2:47). 그리스도의 영이 집회의 대중을 활기 채웠다. 그들은 Pearl of great price를 발견한 것이다.”²⁴

큰 능력으로

다음의 문장을 연구하자: “이 현상은 미래에 다시 일어날 것이며, 그 영향은 더욱 클 것이다.” 긴장감이 넘치는 문장 아닌가? “오순절에 쏟아진 성령님의 힘이 이른 비 [그것은 놀랍고도 경이로운 경험]였다. 그러나 늦은 비의 능력은 더욱더 클 것이다.”²⁵ 만약 그 어느 다른 것도 우리를 흥분시키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럴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에베소서 1:3,4 이 이 문제에 관한 실마리를 준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3,4).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분의 대변인으로 그리스도를 선택하셨다고 하셨다. 그러나 그 계획을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그 결정에 대해 고민하셨다. 그러나 예수님 그분께서 하나님을 인류에게 나타내겠노라고 스스로 자청하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로 그와 똑같은 일을 하도록 예수님 안에서 선택됐다. 에베소서 1:4에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아버지 앞에 사랑으로 나가지고, 그분의 품성을 반영하셨듯이,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고 그분의 품성을 반영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늘 의회에서 결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논쟁이 해결되려면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산 증거가 되셨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대한 산 증거가 되도록 선택

하셨다 -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의 유효함을 증명하는 산 증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시고는 인류에게 그분을 들어낼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과 나를 통하지 않고 인류에게 예수님을 나타낼 방법이 없으시다!

그리스도를 위해 “바보”가 됨

제자들은 곧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해하지 못 했다.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지켜볼 사람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할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무섭게 흔들릴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닥쳐올 비극에 대해 미리 경고하시는 것이었다. 또한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분을 바보 취급할 줄 아셨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던지 예수님은 상관하셨나? 절대 아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바보라 불리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자들은 세속적인 눈으로 봤을 때 바보로 여겨질 것이다 -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 우리의 생애를 향복하는 것이 그분의 시대 때보다 지금 시대에 더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착각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완전한 바보 멍청이로 보였다. 슬프게도, 심지어 그분의 추종자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는 바로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으로 생각했었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분의 추종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머리를 떨어뜨리고 낙담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구원하고 계신 것이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분께 당신을 새 피조물로 변하게 하심을 허락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그들이 이해하리라고 생각하나? 절대 이해 못한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바보로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을 광신자라 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너무 큰 희생을 한다고 말할 것이다. 나 자신이 완전히 죽지 않고 그러한 향복은 불가능하다. 완전한 죽음이 없이는 세상에서 오는 그런 모욕을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로 미리 결정 됨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길: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5,6).

이 말씀을 깊게 연구해 보자. “우리를 예정 하사” 누가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나? 하나님 아버지를 말한다. “예정”이란 무슨 뜻인가? 미리 계획함;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셨다. 여기서 분명히 할 점은 미리 계획한다 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 결과만 나올 수 있게 억지를 쓰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그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환경을 조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분은 미리 계획하셨다 - 그분이 준비하셨다는 말이다 - 모든 사람이 양자로 그분의 가족이 될 수 있게 말이다. 어떻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5).

하나님은 온 우주가 완전히 조화되기를 원하신다, “그의 [주의해서 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기에 “은혜”란 단어가 다시 나온다. 그 말에 대해 공부할 것이 생각나는가? 그 말 대신 어떤 단어로 다시 쓸 수 있는지 기억하는가? “품성.” 우리가 공부한 것에 따르면 “은혜”는 하나님의 품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1:6을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다: “그의 품성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택하시어 그분의 품성을 온 세계에 알리시려 하셨으니, 여기서 “품성”이란 단어는 안성 맞춤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었나?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감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요한은 말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1서 4:8). 당신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을 사랑할 것이다; 당신이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사랑할 수 없다. 당신은 그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나 - 사실 많이 들어 봤었을 것이나,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면, 당신은 그분을 사랑할 수 없다.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당신이 그분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에베소서 1:7,8).

에베소서 첫 장이 모든 성경 구절 중 하나님의 영혼 구원 계획을 밝히는데 있어 가장 훌륭한 부분일 것이다. 에베소서 요약된 이 개요가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 남아 있는 스물네 시간 동안 그분은 제자들과 아주 중대한 대화를 나누셔야 했다. 만약 당신에게 죽기 전 마지막 생각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섯 시간 동안만 할 수 있게 허락했다면, 무엇을 말하겠는가? 내가 짐작 건데 그것은 아마 피아노나 자동차 등에 관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10).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예수님의 형상 나타내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는 오류에서 필사적으로 탈출해야 한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비슷할 수 있으나, 그 둘을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가도 달라야 한다. 우리가 무조건 계명 지키는 것과 그리스도 형상을 반영하는 것 두 개를 합쳐서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십계명 준수하는 것을 이해하는 정도가 너무나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10에서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5:12에 기록된 말을 유심히 보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분께서 사실상 하는 말씀은, “내가 나의 아버지의 품성을 나타냈다. 나는 그분을 사람들에게 알렸고, 아버지

께서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 그분의 품성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 - 다 이루었다. 이제 너희들도 내가 아버지를 반영했듯이, 나를 세상에 나타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것을 하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생각이 안식일 지키는 것에만 국한되어있나? 아니면 그분은 흠치는 것과 기만, 거짓에 대해 탓하고 계시나? 간음에 대한 꾸짖으심인가? 그것들이 다 포함돼있다. 그러나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자주 지적하는 “이것 해라,” “저것은 하지 말라,”라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뜻이 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도적질하지 않는 것, 거짓 증언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도 마찬가지였듯이, 우리의 생활에서 아주 멀어져야 한다. 그것들은 심지어 우리의 생각 안에 아예 들어오지도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신성한 체하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허락할 때 경험되는 새 삶, 새 창조물을 말하는 것이다.

승리는 결심과 투쟁의 연속을 통해 오는가? 그것은 당신이 신실하겠다고 결심하고, 이를 악물고 시험을 이기겠다는 자세에서 오는가? 나는 산상보훈 141쪽에 있는 인용문을 누군가가 읽는 것을 거의 듣는 듯하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투쟁과 진진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귀와의 싸움을 투쟁과 결심의 연속으로 고생하고 번뇌한다. 그들은 그 싸움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 글이 진실로 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옛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유전적 성향 곧 이전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영적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암흑의 왕국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거둬나지 않은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과 정욕이 자신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기심과 교만은, 저희를 죄악적인 것으로 지적해 주는 것은 무엇이나 대항하여 싸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배권을

쟁취하기 위해 애쓰는 악한 욕망과 습관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강력한 원수를 정복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자아와 또 자신의 의지와 습관을 정복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동의와 협력이 없으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 없다. 성령은 사람에게 주어 진 기능과 능력을 통하여 일하신다. 우리의 정력은 하나님과 협력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매 걸음마다 열렬히 기도하며 자아를 낮추는 일 없이는 승리를 얻을 수 없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능력에 역지로 협력하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의 감화보다 백 배나 더 큰 강도(強度)로 그대를 강요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를 하늘에 적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사단의 요새는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와 같은 편에 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대의 목적과 욕망과 성향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없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고자(기쁜 마음으로 하려는)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를 위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되 심지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고린도후서 10:5) 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12,13).”²⁶

하나님의 본성이 당신 안에 거하면 거짓 증언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을 막아준다. 그것은 사탄이 나를 더 이상 유혹하지 않는단 말인가? 절대 아니다! 그는 유혹할 것이고, 그가 예수님에게 그랬듯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유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시험의 정도는 너무나 큰 나머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당하셨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무 죄를 짓지 않으셨다” (히브리서 4:15).

아마도 당신은 이렇게 물을 수 있다, “그러면 유혹이 언제 죄로 변하는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그 유혹이 제시하는 바를 행동으로 옮길 때 인가? 그렇지 않다! 이 대답이 당신을 놀라게 했나? 그러면, 우리는 언제 죄를 짓게 된단 말인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유혹에 머물러 있을 때이다. 다르게 표현하겠다: 유혹은 우리가 그것을 떨쳐버리지 않고 계속 생각할 때 죄가 된다! 잠언서 23 : 7은 말하길,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 함이라.” 그렇다면 죄는 어디에 존재하나? 죄는 우리 마음속에 존재한다! 죄 된 행동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것이 마음속에서부터 먼저 없어져야 한다. 만약 나의 마음(생각)이 그 죄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유혹이 제시하는 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고 있다면, 나는 단지 위선자에 지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말했다, “억제된 악(惡)은 가장 사악한 형태의 선(善)이다.” 억눌러진 악(惡)이 바로 세상이 원하는 그런 종류의 선(善)이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었나? 세상은 말한다, “남이 보는 앞에서 이것 혹은 저것을 하지 말라.”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알고 있지 않는 이상 죄지어도 상관없다는 뜻이 된다. 예수님께서서, “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억제된 악(惡)을 뜻했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10).

“나의 기쁨(즐거움)이 너희들 안에 남아있기 위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11).

우리가 말하고 있던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한 저녁 집회 시간을 다 소모해도 모자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통해 오는 그 힘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당신 삶이 악(惡)을 억누르며 고난 속에 사는 것 대신 그분이 당신 안에 거하심을 통해 오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가?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말했으니,” - 내가 너희에게 권면했으니, 혹은

내가 너를 인도했으니, 혹은 내가 이런 것에 대해 알려주었으니 - “그것은 나의 기쁨(즐거움)이 너희들 안에 남아있기 위함이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들은 예수님의 즐거움을 이해하지 못 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분의 즐거움을 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즐거움을 바보짓 하는 것(경망)과 동일시하고, 보통 “쾌활”한 사람을 떠올린다. 우리는 헛소리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을 웃게 만드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리고 사실상 어떤 때는 그런 사람들을 “모임에 있어서 생명”이라고 표현한다. 그것이 요새 우리가 내리는 즐거움(기쁨)의 정의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즐거움은 달랐다. 그분의 즐거움을 목격한 어린아이들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그분의 무릎에 앉게 만들었다. 어린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그분의 꾸미지 않은 사랑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성인도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지위나, 그들이 남자이건 여자이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 존재했던 다른 어떤 문화적인 분위기와 상관없이 그분의 사랑에 끌렸다. 그분을 위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 여기저기 따라다녔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에 매력을 느꼈고, 그분의 즐거움(기쁨)에 심취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끌었던 그러한 종류의 즐거움이 바로 그분이 말씀하신 기쁨이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남도록” (요한복음 15:11).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기쁨(즐거움)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그분 안에서 사람들이 그분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보고 -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보지 못 했던 그런 것 - 그분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 뜻하셨던 과제를 그분께서 이루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다. 그분의 즐거움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었다. 전혀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분 아버지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우리의 즐거움도 이와 같이 비롯된다: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낼 때.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서는 물으신다, “나의 형상을 나타낼 때 네가 가질 수 있는 즐거움을 경험해 보겠느냐?”

교회와 예수님의 형상

이 시점에서 조금 불편한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즐거움을 바라는 것인데,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바라고 있다는 점이며, 이것은 계속되는 문제이다. 우

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너무나 흔히 방문을 나가 문을 두드리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묻고 우리와 성경공부하기로 초청하는 것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한다. 그것이 우리의 보편적 응답이다. 내가 우리 이웃을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 성경공부하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오해하지 말아달라. 사실을 말하자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내가 아마도 과장한다고 들릴 수 있으나,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을 어떤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여긴다고 나는 생각한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그들의 접근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오직 한가지 관심은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교인들이 이 일 저 일하도록 강압당하는 것이 아니었고, 어떤 위원회에서 할 일을 만드는 것도 아니었고, 사도들이 영적으로 꾸민 허위와 억압을 이용하여 교인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아니었다. 절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의 오직 하나의 주요 관심사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하나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바라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기적을 그들의 마음에 일으켰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에게서 올수 있는 그 어느 정도의 강압도 일으킬 수 없을 정도의 절박감을 갖고 그들의 임무를 수행했다.

여기서 잠깐 틈을 내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 처음부터 분명히 해둘 것은 예수님께서서는 교회를 위해 돌아가셨고, 비록 교회가 완벽하지는 못했으나 그분은 교회를 둘도 없이 사랑하셨기에 나는 이 주제를 정중하게 다룰 것이다. 계시록 3:14-21에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그 교회에 대해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형용사를 담고 있다: 비참함, 불행함, 눈이 멀, 가난함, 별거벗음. 불행하게도 그 교회는 자신이 처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다. 계시록 3장에 묘사하고 있는 내용은 호의적이 아니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고이다. 그리고 그것을 읽고 기분이 상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 단순히 우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혼란 속에 빠뜨린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다행히도, 우리의 현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그 기별은 다른 한편으로 그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방법을 제시한다. 그게 무

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리는 그리스도의 의(義)로움의 예복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예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제공하신 것인데, 그 안에는 “인간이 고안한 것은 한 올도”²⁷ 없다!

삶을 충분히 즐김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의 기쁨(즐거움)을 누리길 바라신다고 공부했다. 그 기쁨이 무엇인가? 진정한 기쁨은 각자의 삶을 그것이 누릴 수 있는 최대로 즐기는 것이다. 그것은 그동안 공부한 대로 그분 안에 거하는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이것을 확고한 신념을 갖고 얘기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 정도(正道) -에서 어긋난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다. 단순히 말해 절대 가능치 않다는 것이다. 자기 양심에 거르는 길을 가는 사람은 그저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진실이 아닌 것 하나에라도 집착하는 사람은 비참하고, 가슴 아프고, 완전한 파괴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며, 마지막 결과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할 것인가? 어떻게 마귀는 우리에게 나타나 교활하게 -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그 투쟁을 생각한다면, “뻔뻔스럽게”가 차라리 더 정확한 형용사이다 - 잘못된 길로 유혹하고,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제안할 수 있나? 예수님은 사탄의 제안에 어떻게 대응하셨나? 그분께서는 어떤 도구에 의존하셨나? 그분의 경우, 어찌면 초능력적인 힘, 혹은 개인적 욕구 충족?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나? 그분은 오직 하나의 의무를 시행하는데 전적으로 복종하셨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그분의 형상을 나타내는 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신다.

마지막 생각

끝으로, *Christ's Object Lesson*에 기록된 우리를 흔들 어 깨우는 생각을 나누겠다. 이것은 마가복음 4:29에서 비롯된 것이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마가복음 4:29).

여기서 언급되는 것이 무엇인가? 열매 - 안에 거함의 결과로 얻어지는 열매. 여기서 말하길 가지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덩굴에 거한다고 했고, 열매가 생기는 즉시 그분께서 낫을 던다고 했다. 추수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시길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사람들 안에서 온전히 반영될 때, 그분에게 속한 자녀들을 다시 찾으러 오실 것이다.”²⁸

Notes:

²¹ White, E.G., *Christ Object Lessons*,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41), pp. 120,121.

²³ Ibid., p. 271.

²⁴ Ibid., p. 120.

²⁵ Ibid.

²⁶ Ellen G. White, *Thoughts From the Mount of Blessing* (Mountain View, Calif.: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28), pp. 141-143.

²⁷ *Christ's Object Lesson*, p. 331.

²⁸ *Christ's Object Lesson*, p. 69.

토의 문제:

1. 우리는 누구를 대표하라는 임무를 받았나? 왜? 그것의 결과는 무엇이겠는가?
2.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교회 신자들에게서 느낀 매력은 무엇이었나?
3. 세상에서 이해되는 사랑과 “자비로운” 사랑을 비교하라.

4. 에베소서 교회에서 이루고자 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었나?
5.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을 세상은 어떻게 부르고 있으며 당신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6. 승리는 고난과 결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면, 어디서 오는 건가?
7. 예수님께서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 기쁨이란 어떤 종류를 말하나?
8. 우리가 덩굴 안에 거함의 결과로 오는 기쁨을 경험했을 때 어떤 삶이 가능한가?
9. 우리를 비참함과 파괴로 이끄는 길은 무엇인가?

6 장

안에 거함과 끊임없는 기쁨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9-12).

서두

지난번에 우리는 요한복음 15:9를 중심으로 연구했다. 그 구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 예수님을 그분의 개인적 대변인으로 만드신 것을 제자들이 배웠다는 것이다. 하나님 - “삼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그것) -께서는 그런 대표가 필요하셨다.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었다. 그 중책을 예수님 혼자 이행하셨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와 똑같은 대변인으로서의 책임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것도 배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듯,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과, 연약함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책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다행히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후,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을 실행할지 그 방법을 알려주셨다.

그분 자신의 임무를 설명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보내졌다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임무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나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과 같은 취지로 내가 너희들을 보내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뜻의 필수 사항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의존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 “나 혼자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한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고린도후서 5:19).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인간 대변인들을 통해 지금 이 세상 안에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분들(삼위 하나님)을 세상에 밝히기 위해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대변인이 되도록 선택하고 계신다. 그것이 예수님께서서 다음을 말씀하신 이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16)!

여기서 잠깐 우리의 시간과 생각을 요구하는 점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분의 대변인으로 선택하셨던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대변인으로 선택하신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그 사람이 당신을 대표하고 심지어 당신의 인감(印鑑)까지 어느 용도로라도 쓰게 허락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어느 정도의 신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 그것은 완벽한 신용을 요구하지 않겠는가? 그 완벽한 신용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것이고, 그 정도의 신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그 결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14). 나는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 왔는데, 그 이유는 이것은 마치 한 나라의 대사가 외국에 보내지는 것과 같고, 그는 그에게 주어진 그 나라의 권위를 어느 거래나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특권을 누리는 것이며, 그 대사에 주어졌던 것과 같은 위임 하에 일하는 것이다.

계명과 안에 거함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9-12).

이 구절들은 같이 연결해서 읽어야 하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로 가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서로 연결된 명령으로 - 사랑의 연결 고리 (chain of love) -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 그분을 나타내심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밝히시는 것은 반드시 필수적이었다. 그 이유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분이 곧 사랑이라 주장하셔도, 그분은 사랑이 아니고, 사실상 그와 반대인 허위적이고, 잔인한 폭군이라는 사탄의 성공적이거나 악랄한 공갈 협박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구에 보내지셨고, 그 사랑을 밝히는 과정에서 그분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치셨다. 그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바로 갈보리였다. 그러나 갈보리는 오랜 시간 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오늘날 아직도 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같은 정도로 반영할 수 있는 대변인이 필요하시다.

13절에는 예수님께서서는 추가하신 다음의 내용이 나온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것은 고려할 만한 중요한 것인데, 그 이유는 흔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육체적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의 전형(典型)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그것 이상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그 이유는 사실상 사람이 자기의 육체적 생명을 희생하는 것은 생각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심지어 그렇게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남녀가 사랑

이라는 이유로 기꺼이 치명적인 타격을 마다치 않았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희생인가? 아니다, 그분은 그러한 종류의 희생을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

두 가지 종류의 삶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용하시던 단어 “삶”이 그리스 말로 *psuche*이다. 그것이 “동물적” 또는 “본능적”인 삶을 뜻한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연구에 도움이 되겠다. 그와 상반되게, *zoe*는 내가 정의하건대, “활동적”인 삶을 뜻한다. 둘 다 생명과 연관돼 있지만, 그 둘은 완전히 다르다. 전자는 본능적 혹은 동물적 삶을 뜻하고; 후자는 활동적이고 물질적인 삶을 뜻한다.

마태복음 10:38,39에 *psuche*가 사용된 문구가 나오는데, 그것은 동물적인 삶과 관련된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
으리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자아를 포기하는 것과 십자가를 연결하는 것은 관심을 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십자가는 자동적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과 관련된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 이것은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 항상 우리의 십자가이지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
를 따를 것이니라”(누가복음 9:23).

어떤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가? 그것은 자아를 죽이는 십자가이다! 예수님께서 어떤 십자가를 지셨나? 똑같은 십자가: 자아를 못 박은 십자가였다! 그분의 영광(신성의 힘)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꺾으셔야 할 과제 중 가장 어려운 것이라 기록되어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수준에서 사셔야 했던 것이 인간이 신의 수준에서 살아야 하는 것과 똑같이 힘들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제 마태복음 16:24,25을 공부하면, 예수님께서 반복하신 것이 나온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5절에서 쓰인 단어 “삶”은 *psuche*, 동물적, 혹은 본능적인 것으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갖는 본성을 말한다.

예수님은 다음 구절에서 동물적 본성의 필연적 결과에 대해 그리스인(헬라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한복음 12:24).

그분은 여기서 본능적인 본성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인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한다(고린도후서 5:17). 바울이 말한 뜻은 무엇인가? 그는 부분적인 변화를 말했나? 아니다. 그는 주장하길 누구든지 거듭날 때 - 그가 일컫는 죽음의 과정이 실제로 일어날 때 -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것은 옛 본성이 가끔씩이라도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혹은 우리가 다시는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의(옛 본성) 재출현은 사탄이 옛 동물적 본성에 대해 통괄하고 있고, 그것을 이용하여 환경과 상황을 조작하여 우리를 실족케하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연구한 *psuche* 가 뜻하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그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누구든지 자기의 동물적(본능적) 본성을 살리려는 자는 그 본래의 자신(natural man)을 잃을 것이며, 심지어 그것은 완전히 잊혀질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의 동물적 본성을 잃고 내 목적을 위해 다시 태어나는 자는 그것을 찾을 것이다. 그것이 다름 아닌 다시 태어나는 것(거듭남)이고, 그것의 필요성을 발견하는 것이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다.

다른 종류의 계명

요한복음 15:10절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은 자동적으로 구약의 계명 - 모세를 통해 주어진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며”와 그 뒤에 따르는 나머지 명령들 말이다 - 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가? 구약의 십계명은 그것의 한 부분이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요한복음 15:12절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명확히 설명한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무엇이 일어날지를 설명하고 계셨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겪는 그 사랑을 우리 형제들에게 나타내길 원하시는 그분의 열망을 설명하고 계셨다. 여기서 중심 주제는 사랑이다. 그러나 13절에서 시작하여 뒤에 따르는 절에서 그분께서는 그 단어를 더 애착이 가는 말로 대신하신다. 그분은 사랑이란 단어를 “친구”와 연관 지으신다.

새로운 친구 관계와 기쁨

“친구”라는 단어는 그리스 말 *philos*에서 오며 “사랑”과 같은 어원을 갖는데, 그것은 가식 없고 진정한 사랑을 뜻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친척들을 뜻한다. 만약 우리가 “집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하면, 우리는 가족들만 일컫는 것이지 잠깐 들린 친구가 있었다면 그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스 말 *philos*를 염두에 뒀을 때, “친구”가 되는 것 - 입장을 통해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 - 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덩굴과 가지, 그리고 안에 거하는 관계와 결과적인 열매 맺는 것뿐만 아니고,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사실상 그분의 “친구”가 될 것 이란 말씀을 하고 계셨다.

요한복음 15:11에서 그러한 관계를 가질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 배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과 행복의 비결이 그렇게 간단한 공식으로 열거될 수 있을지 그 누가 알았겠는가? 사람들은 기쁨을 온갖 다른 곳에서 찾는다 - 물건을 생산하는 것,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것,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 이기주의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 -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기쁨의 방법은 따르지 않는다.

기쁨을 가능케하는 슬픔

요한복음 16:21, 22를 보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옛 본성이 죽고 새 본성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예화로 사용한 것은 물리적 삶의 이치로 봤을 때 생각해 볼 점이다. 계속해서 22절을 읽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무엇이 이 기쁨을 가져오나? 덩굴 안에 거하는 것; 오직 그 안에 거하는 것 만이 이 기쁨의 상태를 유지한다. “세상 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시련을 당할 것이다” (요한복음 16:33). 우리가 만약 덩굴에서 분리되었을 때, 바로 세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것은 놀랄만한 말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덩굴 안에 거하면 나 자신도 모르게 물질적 세계를 벗어나게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이 세계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분 안에 거하는 관계를 유지하면, 세속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다시 반복하겠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는다. 거둬남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꾸어놓고,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의 종류를 바꾼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의 가슴에 넘쳐흐르는 기쁨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없어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질문할 수 있다, “왜 우리는 자주 기쁨을 잃는가?” 그것이 누눈가가 빼앗아가서 그런가? 우리는 불행할 때, 다른 사람 탓하기 일쑤이나,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잘못인가? 당신은 어떤 일에 대하여 당신의 배우자를 탓해본 적이 있나? 요한복음 16:22-24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의 응답과 그 조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언급하고 계셨나?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이 시점까지, 너희들은 ‘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요청한 것이 없다” (요한복음 16:24). 이것의 해석에 있어, 우리는 요한복음 15:16에서 도움을 찾는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위 구절의 끝에 “받을 수 있게”가 온 것을 눈여겨두라. 어찌서 예수님께서 “받을 수 있게”를 말씀하셨나? 그분께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그 답을 받는 것은 어떤 특별한 조건이 맞았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길을 준비해 봤을 때만 우리의 요구에 반응하실 수 있고, 길을 예비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분이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 그 조건이란? 요한복음 15:16과 요한복음 16:23,24를 같이 보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며, 하나도 빠뜨림 없는, 영광스러운 일괄적 약속을 발견한다. 다음의 인용문에 주목하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품성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분의 영(靈)을 나타내며, 그분의 일을 우리가 한다는 뜻이다. 우리 구세주의 약속은 조건하에 주어졌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분은 말씀하신다,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분의 구원은 사람을 죄의 상태에 머물게 하지 않고, 죄에서 빠져나오게 한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순종을 통해 보여준다.”²⁹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다.”³⁰ 예수님께서 그 시점까지 제자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요청한 것이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나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요청한 적이 사실상 있는지, 진실로 요청한 적이 있는지 의문이 간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품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분의 사랑의 품성.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화 -그리스도의 품성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고 싶어 하는 것이다. 성화(sanctification)는 칭의(justification)의 과정 다음에 오는 과정이고, 그분의 품성을 우리 명의 앞으로 놓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한 평생 동안 계속된다.

계속하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품성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분의 영(靈)을 나타내며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진다; 더 아름답긴 하나 우리에게 구속력이 더 있는 것을 제시한다 -] “그분의 일을 우리가 한다는 뜻이다.” 그분의 일은 무엇이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어야 하나? 예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이다, “이것이 나의 명령(계명)이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12).

이 모든 것의 정점은 사랑이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요한복음 15:4). 가지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덩굴에게서 그 사랑을 먼저 받아야 한다. 그 사랑은 임의로 제조될 수 없다; 그것은 진정한 줄기로부터 가 아니면 올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품성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분의 영(靈)을 나타내며, 그분의 일을 우리가 한다는 뜻이다.” 그 “어떤 모든 것”을 포괄하는 약속은 거짓이 아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사랑이라는 조건하에 주어진 것이다.

아마도 당신이 질문하기를, “이것이 현실적으로 무슨 뜻인가?” 그 뜻은 우리가 주님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다, “주님, 내 안에 거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품성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그분이 사신 생애를 살고 그분의 일하기를 기꺼이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에게 장려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그 당시 전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나? 왜냐하면 그들은 그때까지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은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같이 있는 것을 사모했고, 그분과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했으며, 그분과 떨어져 있었을 때 불안함을 느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무지한 상태였다. 그들은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의 필요성을 알고 있지 못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이 점에서 볼 때, 우리는 과연 그들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 본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된지 오래이나, 슬프게도 거듭남의 필요성이나 옛 동물의 본성이 죽어야만 하는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덩굴에게 선택됨

예수님은 요한복음 15:16을 말씀하심으로 마무리 지셨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계속 열리는 단 하나의 방법은 가지가 덩굴에 붙어있는 것이다. 이것은 왜 그런가? 왜냐하면 가지는 끊임없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일매일 똑같은 종류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우리는 그 나무에서 하루는 앵두를 원하고 다른 하루는 복숭아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그 나무에 갈 때마다 열매의 성숙도가 다를지언정 우리는 같은 종류의 열매를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열매 맺는 것을 배경으로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16).

네 가지 엄청난 보상

우리의 눈이 열려 그리스도 안에 거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 오는 축복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는가! Meade MacGuire의 *Life of Victory*는 그분 안에 거함을 원하고 추구하는데서 비롯되는 네 가지 엄청난 보상을 제시한다 - 네 가지 중요한 목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1.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 하지 아니하나니 범죄 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요한 1 서 3:6).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죄짓는 것을 멈춘다. 그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에 거하는 경험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온다. 그렇다고 시험이 없어진다고거나, 가끔 실족하지도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덩굴 안에 거하면, 우리는 고의적으로 예수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사탄은 아주 매력적인 유혹을 가지고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덩굴 안에 거하면 그 유혹은 지나가 버릴 것이다 -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고의적이지 않은 한, 비록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 예수의 품성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칭의(稱義)롭다고 부를 것이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적 본성에서 비롯되는 아직 죽지 않은 고의적인 반항은 옛말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다시 태어남과 그분 안에 거함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셨다.

2.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5).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해 온 열매, 성령님의 열매, 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산하시는 예수님의 품성이고, 그것은 가지가 끊임없이 진(수액, sap)을 덩굴에서 받으면서 계속해 열린다. 만약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중단하면, 진(수액, sap)은 끊어질 것이고, 우리의 품성은 손상될 것이다.

3.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있어 성공을 맛볼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7).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 품성의 열매 맺음을 기대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열매를

맺으셨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 가지는 덩굴이 맺는 열매와 똑같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만약 덩굴이 포도덩굴이면, 포도 열매가 맺힐 것이다; 복숭아가 맺히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종류의 열매 - 하나님 품성의 열매 - 를 맺기 위해 단순한 안에 거함의 과정을 설립하셨다. 이것은 진실로 간단한 과정이다.

4.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 1 서 2:28).

우리가 주님 예수 안에 거하면 그분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영광적인 특권인가!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자신 있게 -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엄청난 기대로 - 기다릴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나, 우리가 고의로 예수님에게 등 돌리고 죄를 짓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실수는 있을 수 있다; 마귀는 황폐화됨을 유발하는 유혹을 갖고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책임져주시니 그것은 거쳐 지나갈 것이다. 당신에 관한 기록은 여전히 하나님의 품성이 당신 것이라는 것이다 - 그 품성은 당신이 고의적인 것이 아닌 한, 실수를 한다 해도 여전히 당신 것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점은 죄(sin)와 죄들(sins)의 차이점을 부각시킨다: 거듭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자연적(동물적) 본성에서 나오는 고의적인 반항과, 그리스도 안에서 거함을 원하고 구하는 과정에서 올 수 있는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의 차이점이 그것이다. 그리스도안에 거할 때 자연적(동물적) 본성이 해결된다(바뀌어진다).

영광의 결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매 일 매 일 그러한 확신의 경험을 하길 원하신다. Meade MacGuire가 말했듯이,

“죄에서 승리함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과, 기도생활의 무한한 성공과, 우리의 왕의

처럼 때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는 확신은, 때 일
때 일 그분 안에 거하는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³¹

이것이 바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경험을 원하고 추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네 가지 엄청난 보상이다.

기도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당신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들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당신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 아주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가지가 그의 생명의 근원에서 잘려 나왔을 때 그것은 그저 태우는 것 외에 쓸모가 없듯이, 우리도 당신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태워지는 것 밖엔 쓸모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진실을 매일 조금씩 더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의존하고, 당신을 믿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열매 맺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 - 사랑, 기쁨, 오래 참음, 온유함, 선행, 인내, 절제-이게 하소서. 주님, 세상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신의 품성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품성을 세상에 알려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려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그 품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요구를 귀담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약속을 들어주실 것을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으며, 지금 살아계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이 모든 것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간청합니다. 아멘.

Notes:

²⁹ Ellen G. White, *The Desire of Ages* (Boise: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898, 1940), p. 668.

³⁰ Ibid.

³¹ Meade MacGuire, *The Life of Victory*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42), p.154.

토의 사항:

1.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무엇에 대한 것이었나?
2.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그분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3. 예수님의 기쁨을 주는 완벽한 재료는 무엇인가?
4.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5. 우리에게 그분 안에서 거하는 경험을 원하고 추구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엄청난 네 가지의 보상은 무엇인가?

